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원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12년도 암울한 가운데 시작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굳게 서서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린도전서 15장 58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제 1366호 2012년 1월 2일 (월)
 사시 :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신년 시



부흥의 황금빛 미래로 가는 꿈의 길목이어

소강석 목사 / 시인, 새에덴교회

붉은 태양이 솟구치는 바다의 검푸른 수평선
 태고의 신비로운 동산을 적시던 장강의 물결을 비추던
 심원의 빛이 생명나무 꽃향기처럼 번져가는 새해의 일출

지난 밤 폐선(廢船)의 절망과 잿빛 파도의 저항은
 거대한 시간의 수레바퀴를 막아서며 멈추려 해도
 어둠에 잠긴 저 태양의 수면 위에 빛의 가루를 뿌리며
 다시 숨 막힐 듯 장엄한 몸짓으로 솟아오르는
 2012년의 새 날,
 그 황홀한 태양의 눈동자를 잠들게 할 수 없습니다

세계 경제위기의 블랙홀 속에서 도탄에 빠진 꿈과 희망
 길을 잃고 방황하다 길 위에 쓰러진 청춘의 별들
 절망의 강가에서 목 놓아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신음소리들
 그러나 비상구마저 없는 막다른 골목길 끝에
 밤하늘 암흑의 먹구름 사이로 별들은 종종히 빛나고 있나니

이제 2012년의 찬란한 여명과 함께
 지난해의 혼란과 공허, 절망과 비탄의 노래를 그치고
 다시 하늘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신발 끈을 동여매고
 아직 어둠에 잠긴 산을 넘고 협곡을 지나
 새벽 하얀 서리 내려앉는 강물 소리를 따라
 가슴 시린 희망의 행진을 시작해야 하리라

어두울수록 별은 빛이 나고
 절벽 끝에 피어난 꽃은 잔인할 정도로 그윽한 향기를 발하느니
 거친 광야의 절망과 시련의 시간을 이겨낸
 우리의 새해는 더욱 더 눈부신 꿈으로 빛이 나라라

이제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희망의 등대요
 사랑의 소통과 융합을 주도해 온 미주크리스천신문이어
 일백 수십만의 무궁화 꽃들과

4천여 몸 된 교회 포도송이 알알이 맺히며 향기를 발하는
 하얀 포도원의 들녘과 언덕 위를 지나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저 새해의 지평선 위에
 초록빛 희망의 대서사시(敍事詩)를 기록하소서

진리의 표지요, 복음의 햇불로 타오르는
 미주크리스천신문, 그 사랑과 희망의 아리아여
 새벽이슬에 젖은 돌맹이의 침묵을 깨어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는 들꽃의 향기로운 심포니여
 2012년, 미주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미국사회의 주류 중의 주류 세계로 더 솟구치며 웅비하도록
 그 어떤 풍랑에도 파선되지 않는
 거대한 함선의 불굴의 동력이 되어 주소서

아, 절망과 시련의 거친 눈보라를 헤치며 밝아오는
 2012년 새해의 아침, 그 황홀한 희망의 향하여
 거친 황무지에서 라일락꽃을 피우는
 잔인한 생명과 사랑의 팡파르여
 부흥의 황금빛 미래로 가는 꿈의 길목이어
 다시 어둠의 벽을 뚫고 타오르는 성령의 불꽃이어
 절망을 딛고 세계 위로 비상하고 웅비할
 무지갯빛 높고 푸른 꿈의 나라여.

● 신년 칼럼

승리의 삶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할 때에는 모두 승리감에 불타서 당당하게 입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끝나고 퇴장할 때에는 그 모습이 판이하게 다르다. 승리한 팀은 기쁨이 넘치는 늑름한 모습이지만 패한 팀은 처진 모습으로 힘없이 퇴장하는 것이다.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인생 드라마의 원작자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각본에 의하여 전개되어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보내실 때 낫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마굿간에서 탄생하게 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 때가 되면 심판주로 강림하실 것이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인생드라마의 승리자가 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제 2011년을 보내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의 위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내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좇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주 안에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서 인생 경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8).



신년설교 권태진 목사

2면



2012년 세계 전망 "암울한 전환점"

3면



2012년 신년메시지

4면



신년좌담(LA)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6면



신년좌담(NY)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8면



"새 술은 새 부대에" 2012년 맞는 교회의 응전 기대!

10면

www.kapcq.org

2012년 제직원 수련회

주후 2012년 1월 12일(목) - 1월 15일(주일)

강사



김홍도 목사 * 금란교회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

저녁집회 매일저녁 오후 8시(목-토)
 새벽집회 13일(금), 14일(토) 오전 6시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30분, 2부 오전 10시
 3부 정오 12시, 4부 오후 2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4시
 장소 퀸즈장로교회 본당

*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집회도 있습니다.(금-토 저녁 8시, 주일 오후 4시)

이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담임목사 장영춘 교회전화 718.886.4040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신/년/설/교

제목: 복음의 신앙을 힘쓰는 해

(말씀: 빌립보서 1:27-30)



권태진 목사 (군포제일교회)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 해는 새로운 각오와 기대를 지닌 사람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캘린더의 두께만큼 많은 날과 일들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히로에라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날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을 사도바울의 교훈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진리를 모르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의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고 편지로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복음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 다. 그가 삶의 의미와 조건을 그리스도에게 두었기 때문입니 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빌1:20-21).

사도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의 매임이 복음전파에 유익이 될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 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바울은 어떻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라며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 다.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에도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행복하고 유익된 삶을 살았지만, 편지로 신앙생활을 권면하는 바울 역시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 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성도를 볼 때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 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자랑이 바울 자신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자랑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면 서로가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들, 목회자와 성도들, 대통령과 국민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바람직한 관계가 형성되면 행복 지수도 크게 높아질 것입니 다.

복된 한 해를 위하여 몇 가지 사도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1:27a).

사도바울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분에 걸 맞는 생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합당한 삶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엡4:2-3) 것입니 다. 골로새교인들에게 평강을 위하여 하나 되고 감사하라고 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3:15-17).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우리를 향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 다. 우리를 보호하며 섬리하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게 하려는 목적입니 다.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만드

신 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오랜 세월 거하도록 하려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뱀은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3:5).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의 동기에서 주신 교훈을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됩니다. 전도하라고 하면 교인 수만 늘려라하고 빈정대고, 연보하라고 하면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아 무엇에 쓰려고 하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며, 연보는 이미 베푸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행위이고 더 큰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축복의 원리입니 다.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행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부르신 것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큰 특권을 알아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한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빌1:27b).

한마음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한마음이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마음, 한 뜻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 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빌2:2).

사도바울은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한마음이 되어 협력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성도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지방색, 이념적 갈등, 빈부의 갈등을 부추깁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21-22).

한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면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빌1:28)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 다. 앞에 흉해 같은 장애물이 있어도 전능자를 의지하면 바다를 가르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보낸 정탐꾼 중 두려워한 열 명은 백성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한마음이 되지 않았으므로 광야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협력합니까? 혹 사단의 협력자, 환경에 매여 부정적인 말과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협력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나 목회도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만나면 힘이 나고 신앙의 성장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 다. 한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는 초월적도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지방색, 이념적 갈등, 빈부의 갈등을 부추깁니 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21-22).

택자의 앞길에 있는 고난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 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빌1:29-30).

예수님의 출생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찬한 곳에서 태어나 했고 태어나자마자 피난 가야 했으며,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고난이 있었습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이겨냈습니 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믿고 따르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난에 들어가는 것입니 다. 형통도 은혜요 고난도

은혜입니 다. 시편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119:71)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들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모라(롬5:3-4).

은혜의 크기만큼 고난도 큼니 다. 주의 일에 앞장서서 하면 때로는 대적이 더 많습니 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은혜입니 다. 고난을 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 다. 밤이 깊어 가면 아침이 가까이 오듯 고난이 심해진다는 것은 끝이 온다는 것입니 다. 그 고난을 이기면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의 삶에는 말씀의 양식과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순종의 생활이 꼭 필요합니 다.

예수님이 이겼습니 다. 지금 믿는 자를 대적하는 것은 패잔병이 뒤에서 발톱치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 다. 승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 다. 하나님이 주신 새해에는 전능자의 품안에서 닦쳐올 여러 가지 사건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진 복음의 사역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림: 1월 7일자는 정기휴간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사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 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의 평안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blessings and joy of this Christmas be with you throughout the coming year

발행인 장영춘 목사 외 미주크리스천신문 직원 일동
The Korean Christian Press

'2012년 세계 전망 "암울한 전환점"

세계언론, 정치권력교체 사회혼란과 유럽발 경기침체 가능성 지목

새해를 앞두고 전세계 언론들과 싱크탱크들은 내년 화두로 각국의 권력 교체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사회 혼란 가능성을 꼽았다. 경제적으로는 유럽발 세계 경기침체 가능성을 지목했다. 여기에다 올해 마무리 짓지 못한 중동 지역의 정국 불안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함에 따라 한반도가 위치한 동북아시아도 안심할 지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세계 언론들이 새해를 앞두고 제시한 2012년 화두와 트렌드를 토대로 국가별 새해 이슈를 점검해봤다. 그러나 올해 '아랍의 봄'과 '월가 점령' 시위를 지난해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내년에도 올해처럼 불확실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내년 최대 이슈는 11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다.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견제할 공화당 인물이 누가 될지도 관심사다. 타임은 최근호에서 1월 3일로 예정된 공화당 당원대회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들의 최근 경쟁구도를 특집기사로 다뤘다. 아직까지 공화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 지지율이나 인기도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과 필

에도, 윌스트리트저널은 유럽발 세계 경기침체, 주택시장 회복 부진 그리고 정제된 고용과 주춤하는 소비를 2012년 미국이 안고 가야 하는 경제 4대 위험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외교 정치, 즉 미국의 중동정책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2년에 예상되는 주요 사건들을 제시하면서 중동의 대변혁 가능성

적인 82%의 미국인이 추가 국방비 삭감에 반대한다. 국방비 삭감 방침을 고집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국민의 정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듯 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대통령이 추가 국방비 삭감의 취소를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거부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제임스 A. 라이언스 전 미대통령양해 사령관은 타

로 만든 대침체(Great Stagnation)에 대해 서술한다면 2012년은 '암울한 전환점'(depressing turning-point)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책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난 1937년 저지르던 오류를 다시 한 번 저지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이 끝났다고 잘못 판단, 급격하게

이머징 국가가 세계경제 중심...선진국과 경제성장률 격차 극대화

미국경제 4대 위험요소: 유럽발 세계경기침체, 주택시장 회복부진, 고용정체, 소비주춤

적할 만한 인물은 선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소위 가치를 중시하는 신앙인들의 투표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보수주의자다운 보수주의자가 등장해야만 진보 일색인 오바마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월가 점령대"들이 지적하듯 현 경제상황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에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발뺌하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권의 리더십 즉 책임감 있는 리더십의 등장이 관건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미국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미국 의회 내 수퍼위원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도 리더십 부재 때문이다. 내년에도 대선 과정에서 정치권 혼란이 커지면서 마찬가지로 상황이 재연될 염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늘려야 하지만 정치권이 혼란스러우면 긴축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윌스트리트저널이 선정한 내년 미국 경제 4대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재정긴축이다. 이와

를 예고했다. 포린폴리시는 바사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전 대통령처럼 도망가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마무드 아바디네자드 이란 대통령도 내분으로 물러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국방비를 대폭 삭감하고, 그 비용을 경제 분야에 할당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국제 정치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는 미국의 국방비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최고 장점을 상징하는 군사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을 침공으로부터 지키는 군사지원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리안 페네타 국방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방비 삭감이 핵심 군사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폭 군사비 삭감은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압도

적인 지면을 통해 묻고 있을 정도이다(Lessons never learned). 전 세계 지역별 경제 전망도 회복이 어렵다. 유럽 경제는 부채위기 여파로 침체로 가지만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선방할 것이라고 포린폴리시는 전망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역시 포린폴리시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 경제를 전망한다. 그러나 이머징 국가들, 즉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에서는 비교적 완만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예상한다. 이코노미스트지는 "2012 세계 전망"(The World in 2012)에서 2012년 특히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 간의 경제 성장률 격차가 극대화되고 이머징 국가가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이 스스로 만들어낸 스태그네이션(self-induced stagnation, 장기 침체)의 해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전반적인 경제 전망은 암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래 역사가들이 21세기 선진국 경제를 엉망으

로 만든 대침체(Great Stagnation)에 대해 서술한다면 2012년은 '암울한 전환점'(depressing turning-point)으로 표현될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책적인 실수에 대해서는 미국이 지난 1937년 저지르던 오류를 다시 한 번 저지르게 되는 것을 말한다 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대공황이 끝났다고 잘못 판단, 급격하게 긴축 정책으로 재정·통화 정책을 전환하면서 이듬해 다시 더블딕(이중 침체)에 빠져드는 우를 범했다. 따라서 긴축 정책에 따른,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 낸 스태그네이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전망으로, 윌스트리트저널의 관측과 일맥상통한다. 결론으로, 미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앞선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내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한다. 유럽보다 더 높은 소비자 지출 증가세로 성장을 역시 유럽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은 실업률까지 하락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 내년 대신이 다가오며 정치가들의 비랑 끝 전술이 늘어나고 미국이 유럽 폭풍에 다시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만을 제거하면 2012년이 미국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선회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



시론

새해에는..



송상현 목사 (로스앤젤레스장로교회)

또 다시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는 하루라는 작은 고리로 연결이 되어 열두 개의 묶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감하느냐에 한 해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계획해 나갔으면 합니다.

1. 하루를 찬양으로 시작하십시오. 세상에 오늘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제 죽은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었습니다. 하루라는 인생의 작은 블록을 또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십시오(시136). 찬양으로 하루의 문지방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걱정, 근심의 안개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찬양하라"

2.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루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말씀을 통해 신령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시119:105; 딤후3:16-17).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약3:17-18) 얻어 세상을 섬기며 거룩한 영향력을 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인생을 인도하며 지도하게 하십시오. 주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3. 하루를 깊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의 일을 거역하는 어둠의 세력(사단, 세상, 정욕, 미혹의 영등..)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엡6:1-18). 한 해의 많은 날 중에 하루라는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됩니다(속4:10).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위로부터 받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기도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에 지속적으로 plug in 해야 합니다. 삶에 임하는 강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능력을 부여주옵소서"

4. 하루를 기대감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기회입니다. 늘 반복되는 무의미한 날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삶을 통해 오늘도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시139:17). 나와 동행하시며 교제하시며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며 확장해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눅5:26). 상천하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주를 위해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능한 여호와시라"(시24:8)

5. 선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생겼다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세우십시오. 주님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롬12:1-2) 드리기 위해 결심을 하며 가정, 교회, 사회, 열방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을 드릴 계획을 세우십시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허락하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룰 힘도 주실 것입니다(빌 2:13).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온전히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옵소서"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의 사명
올품한 기독교 고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님을 위한, 세계를 향한 (for the Lord, to the world) 탁월한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 입니다.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만이 드리는

미래를 위한 높은수준의 편안한 교육

한국계 학교로 시작하여 미 주류 종합대학으로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는 쉐퍼드와 여러분의 성장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1. 미래

- 미군 군목 장교 진출
- 미주요교단 안수가능
- UCLA 와 Stanford가 속한 종합대학인준 기관을 통한 세계수준의 학교발전
- 영어강의를 통한 세계화 교육
- 이민목회담임, 부교역자, 전도사, 평신도 지도자 사역
- 세계선교지에 신대학장, 교수, 선교기관장, 선교사 사역
- 일터사역자 양성

2. 높은수준

- ATS인준 목회학석사, 목회학박사과정 및 신학 학사 프로그램
- 세계 최고의 영적 리더십을 통한 교육
 -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영성과 제자도, 교회성장학)
 - 찰스 크래프트 (내적치유, 영적전쟁, 문화인류학)
 - 에드 실보소 (Global Transformation)
- IT, 음대, 간호대 복수전공을 통한 Crossover 전문인 양성
- 미 주류 종합대학 기준의 철저한 학습과정과 결과평가

3. 편안한 교육

- 정부 학비 보조 가능
- 다양한 장학혜택과 저렴한 학비
- On-Line 프로그램을 통한 수업 시스템
- 영어강의 / 통역강의
- 스쿨버스 운영을 통한 편리한 교통
- 교수들의 멘토링 지원
- 이중언어 및 성적우수자 전액 장학금 지원
- Writing / Speaking Center 무료운영

SHEPHERD UNIVERSITY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상담 및 입학문의
213-481-1313

신년메세지 2012년 새해를 맞으며...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세상 피난처 되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강기봉 목사(뉴욕백인교회)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감당하여 주시고, 또 한 해를 열어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사회 경제 여건을 견디며,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신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새해교제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승리한 교회, 시련을 겪는 교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총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자칫 법적이고 행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회는 좀 더 애경사에 마음을 써야 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노회들과 가까이 멀리 있는 교회들과 사역자들을 돌아보며 살피는 총회, 서로 격려하는 총회되기 위해, 마음의 생각을 복음적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순탄치만은 못했던 35년을 묵묵히 자리를 지켜 오신 선배님들의 발자취를 계승하며, 무궁한 자원을 가진 이 세대가 발전시켜 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른들은 후진들을 보듬고, 후진은 어른들을 존경하며 감사하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도 빛 되고 소금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대가 향방을 잃고 리더들이 방황하는 이 시대, 우리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세상의 피난처,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변하지 않도록 붙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시는 모든 일에 열매있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지속적 발전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상을 섬겨잡시다
메릴랜드교협 회장 권덕이 목사(사랑의감리교회)



2012년 한해에도 미국 땅에 살고 계신 한인동포들과 메릴랜드 교민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MD교회협의회 회원교회에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기원합니다. 새롭고 출발하고 시작하는 마음은 또 다른 세계를 갈망하는 힘이 됩니다. 이민자의 삶은 오늘을 살아가는 자리에서 더욱 뿌리를 깊이 내릴 것을 늘 바라는 마음이 기도로 변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두 손에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응답이 담겨질 것입니다. 이민 선인들이 뿌려주신 귀한 삶의 터를 이어받은 자손들에게 아베스의 기도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의 한해로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다니엘에게 임하므로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처럼 한인 동포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 은총이 모두에게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대를 극복하고 또 다른 비전을 세우 가는 한인인민 사회와 단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소통과 회복! 그리고 격려와 세움' 이 만남과 만남 속에서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도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벧전 1:15-16)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딤후 4:5).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당해야 할 삶입니다. 거룩을 사명으로 알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은 변화될 것이며,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에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넓은 마음으로 시작을 기도합니다. '진리가 상식이 되는 세상! 서로를 향하여 함박웃음을 나누는 사회!' 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이여!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으로 세상을 섬겨 잡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 땅위에 실현되길
시카고교회협 회장 박호경 목사(시카고나사렛성결교회)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2012년의 새날이 밝았습니다. 사람은 새날을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所望)이라 부릅니다. 비록 미래의 불안정한 경제와 예측불허의 경제적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소망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변함없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넘쳐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고난의 언덕 너머에 있는 법입니다. 산이 높으면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이 클수록 여러분의 소망은 더욱 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렘29:11-13).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이 사회에 소망으로 가득한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저희 시카고교회협의회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미주의 모든 교회들과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위에 실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살림이 이뤄지길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 김재동 목사(버지니아 서울장로교회)



성탄의 감사함과 기쁨가운데 새해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한해, 2012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시작하며 주님이 오신 깊은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 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평화(shalom)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인간들 사이에 화목(Reconciliation)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시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다리를 이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너와 나 사이의 화목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담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로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한 새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간에 막힌 벽을 허물어 버리고 주님 안에서 화목과 일치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종적인 살림이 이루어지고, 너와 나 사이의 횡적인 살림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 교차점에서 나 자신의 내면의 살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12년은 바로 이러한 살림의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사 다난했던 2011년을 뒤로하고 평안의 한해를 기대해 봅니다.

고난이 축복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 기대
뉴욕교회협장 양승호 목사(뉴욕순복음연합교회)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힘든 한 해를 접고 소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2011년 한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역 사회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기쁜 소식보다는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주님이 능력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어셔야 하고 일어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2012년 신년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사랑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와 우리, 이웃,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가 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2012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는 그래서 오히려 2011년의 고난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늘진 곳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시작하는 새 해, 그래서 섬기시는 모든 교회가 변화 받고 부흥하여 복음을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새 해, 감사와 기쁨이 넘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2012년 새해를 맞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만 의지
샌버나디노카운티교회협장 김성일 목사(빅토리아예수마음교회)



거룩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2012년 새해를 맞이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섬기시는 사역 현장위에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장하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더욱이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더욱 영육 간에 강건해 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가 되면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신년도의 현실적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특이나 신앙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갖게 됨으로 기도하면서 더욱더 신중해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권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라고 기록된 것처럼, 신년도에는 우리 모두 친구와 성경말씀을 많이 읽으시길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일 년에 일독이 아니라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어서 일 년에 다섯 번 이상 성경을 읽으시길 권합니다. 다가오는 신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말론적 신앙의 갈등과 함께, 말씀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이단사설들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연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의 조류에 현혹되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굳건히 세워지려면,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에서의 성실한 예배자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 시면서 강단에서 전해지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년도는 경제적으로 불경기의 늪에서 헤매는 가장 힘든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앙을 온전히 지켜 나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기도생활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속에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만사에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역자 청빙

예배의 공동체, 교육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통하여 신약 교회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한다는 Vision을 가지고 19년전 북가주 신촌세 인근에 위치한 필로델피아에 세워진 남 캘리포니아 소속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한빛 성서 교회에서 영성있는 담임 목사님을 초빙합니다.

- 청빙 분야: 담임 목사
- 청빙 자격: 1. 복음적인 정규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절차에 의해 남 캘리포니아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2. 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 보유자, 3. 영어와 한국어를 편히 구사 하실 수 있는 분
- 직 우: Full Time 사역자로 본 교회의 사제 기준에 따라 대우함 (가족 의료 보험, 주택 수당)
- 지원 서류: 한빛성서교회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목사님은 목회관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및 Resume를 한빛성서교회 청빙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2012년 1월 31일까지
- 지 우: 670 San Antonio Rd #2, Palo Alto, CA 94306, 650-269-2670, 650-472-9094(F), Email: smartectech@gmail.com, web: www.hanbit.us

한빛 성서 교회 청빙 위원회 위원장 임대순 집사

한빛성서교회 (Hanbit Bible Church)

687 Arastradero Road, Palo Alto, CA94304

EM 사역자(part-time) 및 반주자 청빙

밴쿠버 필라델피아교회에서는 개혁주의 신앙으로 Youth 그룹을 섬길 EM 사역자와 성가대 반주자를 청빙합니다.

자격(EM사역자)
- 1.5세, 2세 사역에 소명 있는 분
- 영어가 불편하지 않은 분
- 정규신학대학원(M.Div) 졸업 또는 2년 이상 마친 분

자격(반주자)
- 세례교인으로 피아노 전공자

제출서류 - 이력서 (공공)
- 복직소견서 (EM사역자)

접수마감일 - 총원시까지

보내실 곳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Rev. Kun Taek Lim)
9135 132St, Surrey, BC
V3V 5P6 CANADA

E-Mail: philachurch@naver.com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밴쿠버 필라델피아교회
604-584-5780 / 604-584-5717(Fax)
http://www.pcov.org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 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경우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명어: _____, 목사 , 평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 보낼 경우에는 recipient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명어: _____

전화/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도도 동독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m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96-4400, Fax.(718)896-0074, E-mail: ny@chpress.net

2012년 새해를 맞으며...

신년메세지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일 이뤄드리는 새해되길

워싱턴지역교회 회장 차용호 목사(센터빌한인장로교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고 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하고 인사한다. 복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기에, 그것이 일반적이고 옳은 인사말이긴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뜻에 맞게 살면서 복 받을 일을 많이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복 많이 만드라”는 것도 좋은 인사가 아닐까 생각한다. 누구나 먼저 복 많이 받아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원한다. 금년이 행복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복을 많이 만드는 적극적인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먼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진행되는 일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해가 되어야 된다. 우리 주위의 평범하고 단순한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일하기에 하나님과 이웃에게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임한다.

또한 새해는 앞서서 인도하실 주님이시기에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가정이 더 행복하고, 생명이 더 번창해 질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 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 하셔서 행복한 새해가 될 것을 믿는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하늘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소통하려 오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많은 가난한 이웃, 소외된 이웃, 버려진 이웃, 돌보지 않은 이웃들,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피부색깔이 다른 200여 다민족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소통할 줄 아는 소통의 선수, 소통의 사람 되어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섬김을 이웃에게 보여 드리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필라교협회장 이대우 목사(필라한빛성결교회)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는 서쪽에 해지듯 연말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동쪽에 해맞이 하듯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솟아오르는 태양처럼 대 필라델피아 지역 교회들과 동포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로움은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로 출발할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세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상황이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총체적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은 얻기도 쉽지 않고 지키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미국을 위시하여 국가마다 긴급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평안과 복을 받습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 조국의 안정과 평화적 통일, 동포 사회 안전과 번영, 교회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사랑과 봉사과 감사와 기쁨, 평안과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데 있습니다. 오늘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세대를 꿈꾸며 다음 세대를 이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삽시다. 서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감사하고 관용하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에 맞는 거룩한 삶을 삽시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삽시다.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믿음의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과 동포사회와 전 세계가 건강한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새해 되길

라스베가스교회 회장 유용호 목사(소마장로교회)



살다 보면 정말 특별한 해가 있습니다. 영원히 아름답게 기억될 한 해가 있습니다. 2012년이 바로 그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떠오르는 해처럼 늘 밝고 힘찬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멋진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매일 매일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다시 그물을 내려 보는 한 해 되길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오종길 목사(살리나스영광장로교회)



한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을 때마다 사람들은 지나간 한해를 다사다난했던 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지난 한해도 역시 다사다난했던 한 해임에는 틀림없지만 지난 2011년을 돌이켜 볼 때 단순히 다사다난했던 해라는 한 마디의 표현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충분하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이 너무 크고 심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계속되는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온 세계가 온통 몸살을 앓을 뿐 아니라 미국 속에 사는 우리 이민자들이 겪은 고통과 아픔은 마치 전쟁을 경험하는 것과 같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를 맞는 사람들의 마음은 각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2011년을 보내고 2012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치 숲 막히는 캄캄한 터널을 빠져 나온 기차가 긴 호흡을 하며 다시 펼쳐지는 넓은 평야를 바라보고 또 한 번 소망을 걸어보는 마음들과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밤을 새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허탈한 마음에 빈손으로 돌아왔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므로 만전을 이뤘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맞는 2012년의 새해는 2011년을 실패한 자들에게 다시 주시는 재도전의 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며 새로운 결단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011년의 실패를 경험으로 낮은 곳에서 더 깊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야 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바라는 것은 2012년도에는 미주지역 동포 사회와 모든 교회들이 다시 그물을 내리므로 만전을 이루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비상하는 새해 되길

오렌지카운티교회 회장 엄영민 목사(OC제일장로교회)



2012년 소망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미주 지역 그리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일꾼들과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기원합니다.

어느 해나 그렇지만 특별히 어려웠던 한 해를 보낸 터라 새해 2012년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훨씬 더 각별합니다. 새해에는 이곳 미국과 우리 조국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질게 드리운 어두움이 걷히고 새로운 은혜의 빛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것 뚫리고 잃었던 것 회복하고 넘어진 자 일어나는 그런 은혜의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요한 바다위로 눈부시게 떠오를 새해의 태양처럼 믿음의 가정들 마다 모든 면에서 새롭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원고 도착순)

고난 이겨내고 인내 열매 거두도록

뉴욕목사회 회장 김승희 목사(뉴욕초대교회)



할렐루야. 2012년에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기와 환란 가운데서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예베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제40회 뉴욕목사회를 통하여 큰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뉴욕의 모든 교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어 화합하는 뉴욕한인사회로 거듭날 것을 확신합니다.

질망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미국 뉴욕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새해에는 뉴욕의 모든 교민들이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민자로서 각박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서로가 섬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뉴욕목사회가 먼저 화합하여 하나 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2012년 뉴욕목사회 제40회기 표어는 “화합하여 하나되는 목사회”(요17:22)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적 사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동행하는 모든 뉴욕목회자 공동체로 하나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지역교회들이 모여 서로 축복하고 화합할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성숙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기를 뉴욕목사회와 모든 뉴욕의 한인들 함께 고민하며 노력해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뉴욕 동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길 기도하고, 이전의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의 열매를 거두는 새해 되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을 잡읍시다!

뉴저지교회 회장 유재도 목사(뉴저지 땅끝교회)



새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건너온 이후로 몇 가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삶이 나그네, 이민자, 여행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서 매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민자입니다.

또한 많은 책들 중에서 노만 빈센트 필(Norman Vincent Peale)목사의 책들을 좋아하여 수집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한 교회를 약 50년간 섬기면서 특별히 적극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인들에게 온갖 기회와 함께 어려운 문제들을 줍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는 매일 승리해야 하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자살의 반대는 살자입니다. 위기 안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고통은 성숙을 만듭니다.

저는 또한 미국에 온 이후로 미식축구(football)를 즐겨 보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는 팀웍이 중요하고, 쿼터백의 리더십이 있어야 하고, 과감히 태클을 해야 하며, 한 야드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팍 흘리며 최선을 다해야 이기는 스포츠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연합정신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를 중심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과감하게 도전해야 합니다. 가정, 교회, 사업체, 모임은 다 미식축구의 이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새해에 꼭 붙잡아야 될 성경말씀 한절을 드립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 하리요. 여호와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하리요”(시편 27:1).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미주한인예수교 장로회총회직영 워싱턴 개혁장로회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Seminary of Washington

웹사이트 방문 www.reformedpsw.org

2012년도 봄학기 입학안내

유학생비자 I-20 발급

본 신학교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총회 직영신학교로서 우수한 교수와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하며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모집학과

- 1. 신학사 과정
2. 기독교 교육학, 석사과정
3. 목회학 석사과정

수업일정

- ▶ 원서접수: 2012년 1월 15일
▶ 개강일시: 2012년 1월 28일
▶ 수업일: 매주 토요일

혜택

- 1. 본 교단에서 안수 받음
2. I-20 발행하는 학교와 학점 교류
3. 각종 장학금 혜택이 있음
4. 학생 자녀들은 공립학교에서 수업 받음

학교 입학에 관한 문의는 reformedpsw@gmail.com으로 바랍니다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 윤용주 박사 (301) 512-7988, 김영기 박사(443)520-5252

워싱턴 개혁장로회 신학교

학장 이영섭 박사(Ph.D)

Los Angeles

특별좌담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일 시: 12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참석자: 김영대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중부제일연합감리교회)
민경엽 목사(OC교회협의회 수석부회장, 나침판교회)
변영익 목사(남가주교회협의회 회장, 뽕엘장로교회)
송규식 목사(차세대 연구소소장 대표)
송정명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미주평안교회)
이정현 목사(남가주목사회 직전회장, 나성서부교회)
(가나다순)
사 회: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리 이민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은 교회의 거품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교회들도 그렇구요. 올해 어려움을 통해 이 거품이 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무모한 일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시행했던 일들이 이번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것을 주변에서 보며 그런 면에서 큰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안 되었지요. 부흥이란 것은 지금까지 수평이동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고 나아가서 새신자(불신자 전도)에 대한 것은 미온적이 되어 하나님에 기뻐하는 새신자 수는 늘지 않고 수평적 이동뿐이었지요.

린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지요?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 후세대들이 과연 우리가 세운 교회와 선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답해 지기도 합니다.
변: 한국 목사님들의 생각구조가 잘못돼서 그렇지요(웃음). 생산성이 없는 아이들은 숫자에 낄지 않는다. 큰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침체되고 부흥이 안 되었지요. 부흥이란 것은 지금까지 수평이동인데 이것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었고 나아가서 새신자(불신자 전도)에 대한 것은 미온적이 되어 하나님에 기뻐하는 새신자 수는 늘지 않고 수평적 이동뿐이었지요.

는 현상이지요. 그래서 교인들의 수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이동하면서 교과 개념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안타깝게 교회를 떠나서 어떤 이는 천주교, 불교로 가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목회자들의 분석과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그런 스스로의 결심을 할 수 있는 모티브를 갖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의 생활이 되고 기독교가 돼야 합니다.

장: 가치관의 문제인데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문제 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어야 성공하고 축복 받음을 알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좋은 학교가 성공 축복인줄 압니다. 이것을 바뀌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가치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교회는 영아부 어린이가 1년에 70-80명 세례를 받지요. 교육담당자들이 가치관을 바로 심어 주고 훈련해야 합니다. 좋은 학교 간다고 행복한 것 아닌데 그것을 깨우쳐주지 못하니... 공부하라고 뒤달하고 점수 잘 맞아야 칭찬하고 선물사주지 교회 가는 것에는 관심 없지요. 학원가는 것만 관심이 있고 신앙교육이 방치되는 세상입니다. 이것을 뒤엎어야 합니다. 담임목사들이 새바람 일으켜야 합니다.

장: 올 한해를 지나며 느낀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그럼 2012년은 남가주교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계 기관 대표들께서 좋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2012년에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과 한

한 해가 저물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느라 모두가 바쁜 일정을 보내는 이 시기다. 본지도 신년 특집호를 준비하면서 남가주 교계 단체장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가졌다.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쁜 단체장들이었지만 지난 2011년을 진단하며 2012년 새해의 비전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해 마음을 나누었다.
참석자들은 좌담 말미에 본 지에 대한 관심과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본지가 "알차고 복음적이며 성도들이 봐도 유쾌한 것이 없는 균형 잡힌 신문"이라고 표현했으며 일반성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시각도 있었고 번역기사로 미국교계의 흐름을 알 수 있다고도 했다. 또 기획기사 통해 안목 넓힐 수 있어 좋으며 "문제점 공격보다 좋은 이야기가 강조되는 신문, 긍정적 요소를 강조해서 부정적 면을 지향하는 신문"이 돼주기를 바란다는 견해도 있었다. 발행인 장영춘 목사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바른 신학을 세우고려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편집자주]

장영춘 목사(장): 여러 가지 사역들로 바쁘신 단체장들을 모시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연말을 맞이해 지난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비전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2011년 남가주 교계를 돌아보시며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비는 내리지만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보며 기도만이 미국이 살고 한인 커뮤니티와 교회가 살길임을 경험했습니다.

데 7000여 표 부족으로 부결된 것 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교계가 단합이 되고 기도하게 하는 긍정적 측면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계가 이럴 때 더욱 단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로즈볼 기도회(11/11/11 기도회)를 미기종에서 준비하며 '위기 속에 기도하게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연합기도회를 해도 3000명이 모이기 힘들데 12,000명이 모인 것을 보며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뜻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정현 목사(이): 3년 전부터 불황이 닥쳤는데 미국 경제적 불황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는 배교현상으로 종말적 현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불황은 교회도 영향을 받아 침일조 40-50%로 저조해졌지요. 사회경제도 어렵지만 교회도 어려워 부흥은 고사하고 생존에 연연하는 상황이었지요. 수정교회와 같은 큰 교회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로 어렵다보니 목회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장: 그렇지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적으로 손해 보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축복인 것들 깨닫게 되지요.

김영대 목사(김): 2011년에 특별히 느낀 것은 모두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특히 청소년사역에 대해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현상들이 있지 않았나합니다. 큰 교회의 프로그램을 보면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이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는 점점 연장자 교인들이 늘어나는데 교회마다 30%, 많게는 50% 정도가 65세 이상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대책이 2011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2012년에는 이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경엽 목사(민): 이 목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위기적 상황이 올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지난 11/11/11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특히 다른 민족을 초청해 기도회 할 때 그곳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강력하게 체험했습니다. 저 자신도 울면서 회개

송규식 목사(송규): 금년 한해도 현안문제인 장년목회 문제를 안고 있어 거기에 신경쓰다보니 다음세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도회나 중요 모임을 볼 때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나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 장년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대화하고 항상 다음세대가 제외되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든 다음세대를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변영익 목사(변): 앞서 말씀하신 분들의 모든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빠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날 우

장: 좋은 말씀입니다. 교협이나 목사회는 개교회가 못하는 프로그램

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전도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년 전 한국에 갔을 때 금란교회에 갔는데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저자 손보현 목사) 책을 몇 권 주시면서 이번 초청해보라고 하시더군요. 후에 새에덴교회에 갔더니 그 책을 또 주더라고요. 그 책에서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200명에서 수 천명의 교회로 부흥시켰지요. 미주에도 한번 초청을 해서 전도에도 전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으로 닥치는 것이 세상 사람

들이 보기에 기독교가 기독교답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크리스천의 참 맛을 보여주지 못하

국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겠고 한국의 대선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방면에도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동성애 문제가 대두되면서 동성애를 가르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흡스쿨링과 각 교회가 가톨릭처럼 기독교 학교가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단인 성황하기 좋은 곳이 미주지역입니다. 이단문제, 베리칩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분명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선을 그어주어야겠고. 개교회에서는 부흥이란 수적 성장보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면으로 계속)



장영춘 목사



이정현 목사



김명엽 목사

Advertisement for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Includes text: '국제개혁대학교 ·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2012년 불학기 학생모집', '기독교문학사(B.A.C.S.) - Undergraduate Program', '기독교학 석사(M.A.C.S.) - Graduate Program', '목회학 석사(M.Div.) - Graduate Program', '유치원 원장, 교사 자격 프로그램 Preschool Director & Teacher Certificate Program'. Also includes address: 125 S. Vermont Ave. L.A., CA 90004 and contact info.

New York 특별좌담

2012년 기독교계를 진단한다

일 시: 12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장 소: 미주크리스천신문사
참석자: 김혜천 목사(전 KAPC뉴욕노회장,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노기승 목사(국제장대인선교회 회장, 뉴욕새에루살렘교회)
 문경환 목사(동부개혁신학대학교 학감)
 이만호 목사(세계성령운동뉴욕협의회 회장,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정상고 논설위원(중앙일보)
 최창섭 목사(SBC한인총회 총회장, 뉴욕에베에셀선교교회)
 (가나다순)
사 회: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



2011년 뉴욕교계는 많은 일들을 겪었다. 전 미주에서 가장 모범적이라고 자타가 공인해온 뉴욕교협이 총회를 치르면서 부적절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직 표면화 되지는 않았지만 뉴욕교계가 양분화 되는 분위기에 있다. 본 지는 신년호 특집을 제작하면서 2012년 뉴욕교계가 화합으로 새 출발하기를 기원하는 소망에서 뉴욕의 몇 목회자들을 초청, 신년좌담회를 가졌다. 매년 신년좌담을 하면서 의례적으로 초청한 뉴욕교협과 목사회는 이번엔 참석하지 않았다.

좌담회에 앞서 기도한 최창섭 목사는 "뉴욕교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부끄럽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덕을 끼쳐주며 주의 복음 전하면서 살도록 해주시며, 오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구했다. 또 마지막에는 이만호 목사가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중심으로 성령에 의지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뉴욕교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다. [편집자주]

-2011년 뉴욕교계를 돌아보다면?

장영춘 목사(장): 2011년을 돌아보며 2012년을 치료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질문 '2011년 뉴욕교계를 돌아보다면?'에 대해 한 분석 말씀해 주십시오.

김혜천 목사(김): 2011년을 돌아볼 때, 뉴욕교계가 뭐냐 하는 비판이 나올 듯합니다. 뉴욕교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헌신하고 충성한 해가 되어 충실한 열매를 맺었다고 봅니다. 밖으로 나타난 교협의 문제는 부끄러운 일, 반복되지 말아야 할 일, 치유되고 하나 될 일이 있었다고 봅니다. 착잡한 심정으로 뉴욕교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잘 화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기승 목사(노): 뉴욕에 온지 32년째가 됐습니다. 뉴욕이 좋아 뉴욕에서만 살았습니다. 평신도 때부터 뉴욕교회를 보아왔고, 뉴욕교계가 신앙적으로 건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교계 흐름이 급변함을 느꼈습니다. 신앙 복음적 전통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추

세인 뉴에이지, 종교다원화가 뉴욕교계에도 율 한해 바람을 댔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뉴욕교계를 영적으로 재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고 위원(정): 2011년 키워드가 2개라고 봅니다. 첫째는 교협 총회문제(분열, 다툼)이고, 두 번째는 이단문제입니다. 전에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지난해 총회부터 조짐이 보였다가 올해 심화돼 표출됐습니다. 교계 기사가 13년째 출입하고 있는데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슈화 된 문제 중 하나는 공공유용사태로 해외선교100주년 기념으로 중국에 교회세우기를 계획했는데 그 과정에서 공공이 유용되는 사태가 벌어져 그때 장(영춘) 목사님께서 1만5천 달러를 지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선교는 교회가 할 일인데 연합회가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 이번 경우도 이단, 뉴에이지 등 여러 가지가 믹스(mix)돼서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협이 38년 동안 오면서 전에는 교회 사이즈도 있고 목회도 잘하시는 분들이 해오셨는데 현재는 그 세

대가 지나가고 50대 중반, 60대 초반 목사님들끼리 서열 등을 재편하고 교단끼리 보이지 않는 견제 등으로 문제가 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일은 교계 어른들이 중간역할을 잘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고 한쪽 편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인데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뉴욕교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단 문제는 뉴욕장로교회 같은 경우, 아직 담임이 없는 공백상태인데 보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창섭 목사(최): 플로리다에서 목회하다 뉴욕에 온지 20년 됐습니다. 박수복 목사님 회장 때 총무로 일했는데 교협에 매력이 있었습니다. 연합회를 일을 화목하게 잘하는 것을 선배님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특히 제 회기에 설교해주신 장(영춘) 목사님께서 "교협은 개 교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좋은 열매, 좋은 호응을 받아 자랑했는데, 이번 해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볼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정치화 되고 동조세력 규합 등이 발생돼 영적 부분에서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개 교회사역이나 연합사역까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지 않아 생기는 일이지요.

지난회기 1년은 섬김과 포용이 실종된 회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고 모든 것을 다 끌어안았는데, 서번트(종) 리더십이 아닌 권력화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섬김을 찾아볼 수 없고 독선 오만이 표출되고 대화가 잘 안됐습니다. 권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 상식이 실종된 모습, 평신도들에게서도 없는 모습이 보이고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 생겨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난 회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말뿐이 아닌 섬김, 포용, 소통이 행동으로 잘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주님이 안 계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엎드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만호 목사(이): 뉴욕에 10여년 전에 왔을 때 교계의 활발한 모습, 특히 할렘루아대회를 몇 년 동안 지켜보면서 화합하는 모습에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해(2011년)를 보면 사랑의 모습, 화합, 상대방에 대한 배려, 진정한 봉사,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운운, 겸손, 봉사, 화해, 희생의 착한 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 입장에서는 저에게 교협 회장 추천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외립되지만 (교협)경회회장 몇 분들의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분열된 것처럼 파가 나뉘져 특징인을 무시하고 이권을 찾고 욕심을 내다보니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2011년은 뉴욕교계에 성령님이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부족해도 품고 용납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특징인을 죽이고 무시하

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문경환 목사(문):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고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성숙한 자세가 돼야 하는데 한국의 못된 정치적 풍도가 비취었습니다. 실망했습니다. 회의 전에 경찰을 두고 하는 회의는 말이 안됩니다. 한국보다는 성숙된 자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편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원칙을 가지면 되는데,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됩니다. 성숙된 평신도들에게 '과연 목사님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미국 사회에 끼치는 모습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그런 방향에서 나가면 합니다.

장: 진단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표현에 좀 차이가 있을 뿐 다 같



장영춘 목사

은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뉴욕교계가 지난 38년간 화기에야하게 단합된 모습으로 왔는데 2011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주 원인은 뉴욕교협 회원들이 아닌 밖에서 들어온 외부의 간섭을 받고 애크팅 멤버 몇 사람이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서 활동해온 회원들이 미리 알았으면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협력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침묵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뉴욕교계가 제2의 도약이 될 수도 있고 치료의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회회장

들이 사태를 파악했어야 하는데, 저 대접이나 받고 무분별한 행동을 해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지요. 집안싸움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 우리 포도원을 어지럽힌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하고 바로잡아 정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잘못을 성도하기 전에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도 느껴야 합니다.

이: 2012년에도 이런 분위기는 여전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일부 경회 회장님들의 정치를 위한 정치, 이권을 위한 움직임의 진행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밀어서 세력화 하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 회장은 임기가 1년입니다. 회장을 잘못 세워도 1년이 지나면 되는데 우려되는 바는 경회회장님들이 집단적으로 무리가 돼서 이끌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경회 회장들이 복음적으로 잘 이끌어오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 뉴욕교계 선거 풍도가 조조각 돈이던 다 된다는 풍도가 진짜 우려됩니다. 한국과 같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 외부 세력인 WCC 문제가 있습니다.

김: 모든 게 복합적으로 연결된 일로 보여집니다. 외부의 연결된 움직임



김혜천 목사

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안내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30 수 요 기도 회: 오후 7:30 세 배 기도 회: 오전 6:00 (월-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 회: 주일 6:00 주일학교 예배: 오후 11:00 Tel: (704)841-0821, Fax: (704)841-1625 목사관: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 유 주일 아침예배: 오전 11:00 오로천일예배: 오후 2:00 금 요 기도 회: 오후 7:00 Tel: (303)422-8950, Fax: (303)422-8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9:00(한국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0:1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국어) 수요일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 엘 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국어):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국어):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국어):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국어): 오후 1:45 EM 예배: 오전 10: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후 8:00 금 요 기도 회: 오후 8:00 대 학 청년 부: 오후 1:30 종교개혁 500주년기념사업회: 11월 유지, 유년부: 오전 10:00 Tel: (508)435-6578, Fax: (508)435-5467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볼티모어 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50 Tel: (410)337-9448, 882-0181, Fax: 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새시던시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5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 요 저녁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astle.org	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전 4:00 수 요 예배: 오후 7:30 금 요 예배: 오후 8:00 매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 Tel: (501) 920-9049 /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LITTLE.ORG	앵커리지델리안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 아 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 요 예배: 오후 7:00 Tel: (807)344-6446, Fax: (8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델리안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회: 오후 8:00 Tel: (251)542-0288, Fax: (251)542-9037 706 Witt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 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 요 예배: 오후 8:00 금 요 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www.mpcow.org	주 예 수 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목 요 찬양: 저녁 8:00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cus Rd., Richmond, VA 23235 www.jkc.org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 요 예배: 오후 8:00 세 배 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 (410)203-0516, Fax: (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8-1433 9702 E. W.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영문)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문)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8-1433 9702 E. W.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명 1부 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금요방식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53)536-6675, Fax: (253)544-9515 www.hnwilchurch.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파라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문/이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Tel: (480)726-019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www.tpkpcz.com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 요 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오전 6:00 Tel: (860) 643-4738 Fax: (860) 647-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창현 주일영어예배: 오전 9: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738-1004, Cell: (808)218-4592 1053 6th Ave., Honolulu, HI 96816	하와이 한국교회 담임목사: 김순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수 요 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808)277-2936/557-1778-542-2922 1351 S. Beretania St., Hon., HI 96814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수 요 예배: 오후 7:00 수 요 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nwil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8면에서 계속)

교협 본연의 자세인 융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진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느낌을 줍니다. 교협은 여러 교단이 모여 있고 협력하며 지역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가는 일에 목표를 두는 것이 본연의 자세인데 WCC 후원 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습니다. 분명 계획적인 방향성 있는 흐름입니다. 이단문제, 상반된 신학적 문제 등과 뒤 배경 속에는 WCC가 있다고 봅니다.

-2012년 뉴욕교계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이: 새 회장단들이 소통, 화합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분명 이뤄져야 하는데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이권, 욕심, 탐심을 뽑아 버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통, 화합은 자기를 비우고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성령의 강권적 역사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회개기도운동하고 성령운동에 기치를 들기는 바랍니다. 뉴욕교계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최: 교협회장이거나 목사회 회장이 오셨어야 하는데...(웃음) 저희가 집



현창섭 목사

작은 할 수 없고 소통, 화합 단어는 사용하지만 시작부터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접 관여해서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좋은 권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장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증거회장이나 멘토들이 있어서 뉴욕 동포사회나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교협운영이 되도록, 기회가 되면 전임회장으로서 권면하려고 합니다.

정: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교연(교회연합회)과 WCC, 이 두 문제는 뉴욕교계에 뿔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장 문제는 교연을 추진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덕이 될지, 교연의 당위성이 얼마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장: 윤곽이 있습니까?

정: 전임 김원기 회장 불신임 서명자 101명이 있습니다. 이번 교협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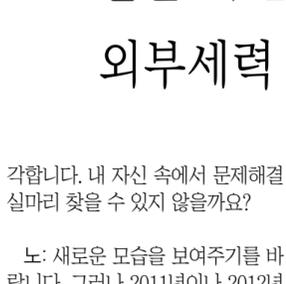


정상국 논설위원

사위원회에 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교협의 자세를 보면 물아내는 태도입니다. 조사위원으로 당사자들이 들어갔다는 것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호응도 못 받는 것인데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면에서는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책도 있습니다.

문: 교계 운영자는 아니지만 자기를 보는 운동을 전개하면 좋겠습니까. 책임 전가를 남에게 하지 말고 내 문제로 알고 자기 성찰을 하면 문제 핵심을 짚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

최: 교협회장이거나 목사회 회장이 오셨어야 하는데...(웃음) 저희가 집



정창섭 목사

각합니다. 내 자신 속에서 문제해결 실마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노기송 목사

노: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011년이나 2012년이나 거의 같은 선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기, 5인조사위원회 모두 동일한 인물들입니다. 아직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WCC 문제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WCC를 교계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와 교연이 이슈인데, 교연은 WCC의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교협이 시작부터 불리의 자세로 나갔기 때문에 교연이 존재할 명분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필요한 것이 회개운동입니

다. 장로총대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현 시점에서 지역교회와 교협을 위해서, 교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협 운영목사들의 회개 역시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잘못을 수용해야 합니다. 객관성, 형평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외부영향력이 없다면 화합의 장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013년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교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외부의 입새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양보하고 양보하기를 바랍니다. WCC가 관련인데, 교협이 WCC를 공식적으로 지지한다면 갈라지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 교연은 WCC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것은 복음(구원)의 문제이므로 분명히 일어나고 회개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영향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교연이 대두되는데 현재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WCC 문제가 수면으로 부상하게 되면 대안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사수하는 운동으로 호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 그동안 뉴욕교계가 복음적이었지만 최근 WCC가 보이지 않는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 WCC와 교연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WCC는 신앙문제, 교연은 정치적 문제입니다. 현재 교연은 이종병 목사 측근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바람은 교계를 위해, 평신도 입장에서, 분열보다 화합이 훨씬 낫습니다. 또는 개인이나 교단차원에서 교협에 WCC에 대한 공개적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한장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문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 교연은 현재로서는 명분이 약합니다. WCC 문제가 부상했을 때는 총대를 뿔 수 있습니다. 2012년에는 수면으로 올라올 것입니다. 그 때는 교계를 정화시킬 수 있는 파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장: 교협 회원은 신앙 칼라가 여러 가지이고, 신학의 색은 개교회가 자유입니다. 교협이 개 교회를 무시하고 단체적으로 지지한다. 안한다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을 결정하면 규정은 분명됩니다. 물론 교협을 처음 만들 때는 자유주의 신학

New York

특별좌담

을 막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많은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긍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일단은 긍정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2012년 미국과 세계, 한국 기독교계를 전망한다면?

정: 대공황 때의 종교현황이 어떤지 찾아봤는데 자료가 없었습니다. 다만 비슷한 예로 911사태 때,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증가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PCUSA 동부한미노회 연감을 보니 교인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황 때 7%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대형교회들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 헌금에도 증가했습니다. 한인교회는 교인 수는 증가했으나 헌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으나 내년까지 맥시멈으로 본다면 증가된 교인들이 잘 정착하면 1, 2년 내 긍정적인 효과가

위기이식을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 기도운동, 회개운동을 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문: 전 세계의 흐름을 비교할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비교할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문경환 목사

다. 그래도 한국교회는 보수적입니다. 한국교회가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은 정치하는 목사들 때문이고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성도, 목사들

세계적으로는 대선이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등. 정서적으로 불안한 시대입니다. 2012년에 종말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명이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번 세계한민족회자 세미나 주제인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부흥의 역사가 더 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미국 경기가 어려워지니 계시록이나 에스겔 말씀처럼 하나님 말



이만호 목사

말뿐 아닌 섬김, 포용, 소통이 행동으로 잘 이뤄지길 외부세력 막고 WCC 문제 부상하면 대안세력 있어야

씀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세계성령운동유형협의회 회장으로서 소망을 갖고 있는데 뉴욕교계에 어느 정도 복음화가 이뤄졌다고 보는데 그 벽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화를 지퍼나가고 좋아하기만 하면 안되고 범죄 없는 도시로 성서화운동을 강력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사라실천운동이 실제 일어나야 영 5대 운동, 영혼구원, 전도, 세계선교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데 청소년요셉 활동을 실천해보려고, 이 지역을 위해 봉사하려고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신실한 몸부림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어떤 방법으로든 전개돼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지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붙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 갈수록 세속화 될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인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등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 영적 현실은 계시록 11장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알곡과 쟁곡이로 가르고 계십니다.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으로, 기복신앙으로 점철돼 왔던 한국교회가 최근 감소되고 있는 이유도 주님의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나 목회자가 지탄을 받고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소망은 본질로 돌아가야 없지 예수, 말씀, 회개, 기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도록 교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김: 2012년은 세상적으로는 혼돈과 불확실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전

장: 뉴욕교계를 돌아보고 미국과 한국 또 세계를 전망했습니다. 이번 좌담회가 적으나마 뉴욕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뉴욕교계 도움을 주는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 목사님들이 뉴욕교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최선의 소통자, 화해자, 매시자의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나 돈이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데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러한 흐름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알고 더욱 기도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좋은 말씀 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안내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5: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30 저녁 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9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안원동 340-1 (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청 주일 1부예배: 오전 7:4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8077 Tel: (82)31-984-295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육촌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기도회: 오후 7: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3, Fax: (062)522-4834 500-170 광주광역시 북구 남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주일 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항희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 (82)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평택시 평택동 1670-1	로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오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9-339-1726, 39-06-943-9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상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용인시 수지구 용인동 622-3 (158-053)	새이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주일 5부예배: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 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3:30 새벽 1부예배: 오전 5:0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Tel: (82)2-2646-3184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520 (150-808)	성신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n.or.kr Tel: (82)2-996-969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 1부예배: 오전 5: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수오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매일) Tel: (82)2-2643-8553~4, Fax: 2647-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정필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8:5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8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오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4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4 (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오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Fax: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37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미사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영등포구 신길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수오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제일교회 담임목사: 조윤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2:50 수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2-927-5511 서울 용인군구 제기동 713-26호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40 주일예배 4부: 오후 1:30 수오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00)9:00 Tel: (055)286-4710~4, Fax: (055)286-3494 (641-370) 경남 창원시 신촌동 20-3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자연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인철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오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 (02)842-6881, Fax: (02)942-8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6:00 주일 2부예배: 오전 8: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4: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8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오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 FAX: (043)274-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박준순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새 술은 새 부대에” ...2012년 맞는 교회의 응전 기대!

바나리서치, ‘2011년 6대 트렌드에 대비한 교회공동체 패러다임 변화 요구’ 보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마9:17). 메시아 시대의 바람이 부는데도 이를 거부했던 율사와 바리새인들을 빗대며 새로운 시대를 맞아 마음의 문을 열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계3:20).

미국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더욱 힘들게 2011년을 보냈다. 힘들 때, 쳐다보지만 해도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인물이 없었고, 지옥에 대한 가벼운 현대적 해석에도 크리스천들은 기존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다. 그러나 교회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 감사했고, 크리스천 기업가들이나 브랜드를 구매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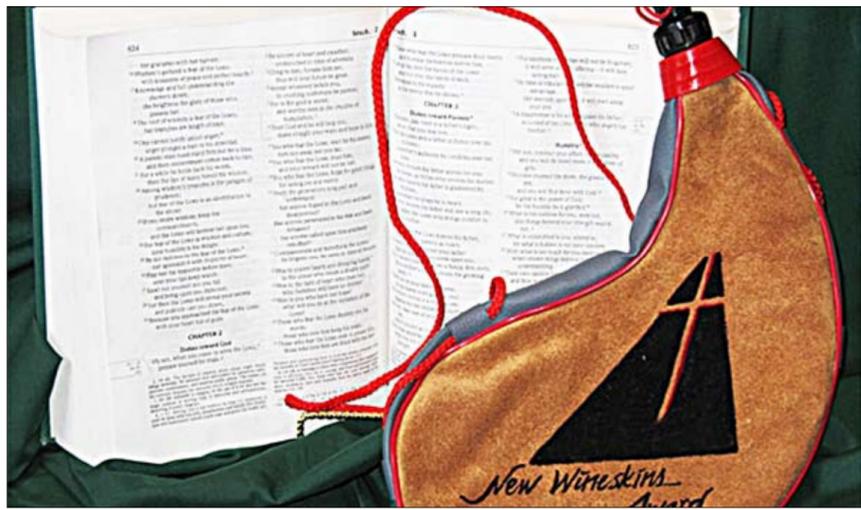
그러나 소위 “아메리칸 드림”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 한파에 위축되기만 했고, 밀레니엄 세대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는 것에 힘들어 했고, 여성들은 더 이상 기존의 여성상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캐리어를 쌓아나가기 시작했고, 지치고 힘든 부모들은 가정에 돌아오면 반겨주지 않는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공간에서 SNS에 열중해, 가정의 전통적인 의미마저도 퇴색돼 버렸다. 그러면서도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충족시키려고 교회공동체를 찾지만 아직까지도 교회의 문은 닫혀 있기만 하다.

따라서 바나리서치는 기독교 즉 교회공동체의 역할이 마치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와 같기를

제시한다(Top Trends of 2011: Changing Role of Christianity). 2011년은 한마디로, 크리스천 리더십 부재의 한 해이다.

보수적이고 자신의 신앙과 도덕적 가치를 삶의 현장에서 천명할 수 있는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대형교회 담임 목회자의 지옥

가르침에 충실했다. 그만큼 크리스천 리더십이나 가르침에 실망했지만,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적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기업



더 지역사회에 문을 열어야 한다. 계속되는 경제 한파는 한마디로, 미국인들로 하여금 단순한 바람에서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 되는 것들만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충동구매보다는 알뜰한 실속 구매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메리칸 드림 역시, 초기의 개척자들처럼 기대를 하향 조정하면서 소비보다는 저금을 늘리고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이룬다는 것으로 조정됐다. 이러한 조정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경제가 단시간에 완전하게 회복될 수가 없다는 예상 때문이다.

교회공동체는 줄어든 헌금과 도네이션 외에도 밀레니엄 세대(18-29세)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됐다. 이들은 전혀 자신들의 삶에서 성경적 원리를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술이나 과학 영역에서, 자신들의 경력을 쌓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교회문화에 완전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교회는 이러한 영역들에 문을 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이 바로 SNS의 절정이라는 예측처럼, 첨단 디지털 기술은 미국사회 구성구석까지 깊숙하게 침투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심대들만이 SNS나 인터넷의 최대 수혜자가 아니라 부모들까지도 아이들 못지않게 디지털 혁명

을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새 중독처럼 첨단 디지털 문화는 가정에서의 대화라든지 관계의 이미지를 붕괴시키고 있다.

결국 교회공동체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디지털 문화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에 대한 대안 제시에 앞장서야 한다. 즉 디지털이 아닌 아날로그식 독서나 명상, 산책, 운동 등을 통한 의미 있는 시간 보내기나 디지털로부터 의도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간 만들기 등을 통해 첨단 디지털 역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문을 닫고 있다.

여기에 여성들 역시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다. 특히 십대 여성들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영역에까지 도전하는 과감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결혼 연령대가 점점 더 20대 후반이나 30대 중반까지 연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교회의 문이 열려져야 한다.

결론으로, 2012년에도 교회공동체는 영적 변화와 성장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미국인들처럼 자신들을 크리스천으로 여기면서도, 크리스천다운 삶을 인정할 수 있는 자신감이 결여된 크리스천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영적 변형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위임과 위탁, 온전한 회개, 영적 성장을 위한 동기부여 그리고 교회공동체에 대한 참여 등에 대한 도전을 계속 주어야 한다.

결국 영적성장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의 선정을 통한 예상 가능한 영적여정 프로그램이 고안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야만 미국인들은 2012년에도 영적 방황이 아닌 영적 성숙과 변화를 통해 외부적 환경에도 제한받지 않는 행복한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천 리더십 부재 2011년...마음 문 열고 소통 아날로그식 시간 갖기...디지털도 청지기의식 가져야

미국인 중 41%는 선듯 미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을 선정할 수가 없었다. 빌리 그래함 목사를 제외하고는 정치계, 문화계, 경제계 등 사회 전반에서 크리스천 리더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 대한 가벼운 해석 즉 지옥은 그리 무시무시한 곳이 아니라는 논란도, 미국사회가 얼마나 보편주의와 종교적 다원주의의 정점에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54%의 미국인들은 심판이나 지옥과 천국에 대한 전통적인

들이나 이들이 만든 상품 구매에 앞장섰다. 왜냐하면 미국 성인 중 3/4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고, 자신들의 구매 중 일정 부분이 지역사회로 환원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공동체는 더욱

을 이끌어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들이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나면 부모들은 저마다의 노트북으로 SNS나 비디오 시청에 열중하고, 자녀들 역시 스마트폰, 노트북, 그리고 태블릿을 통해 각자 나름대로의 온라인 공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2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2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2012년 5월 시행될 “목사 학력 및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지역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2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인 본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흠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고시 일자: 2012년 5월 17일(금) ~ 21일(월)
2) 고시 장소: Sheraton Meadowlands Hotel & Conference Center, East Rutherford, NJ, 07073 (Tel: 201-896-0500)
-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1) 필기 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한번 (이상 4과목)
2) 제출 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1) 구약 주해 - 창세기 3:1-21
(2) 신약 주해 - 베드로후서 3:8-13
(3) 논문 제목 - VeriChip에 관하여 개혁주의 성경적 입장에서 논하시오.
(4) 설교 원고 - 1. 구약: 요엘2:28-32
2. 신약: 사도행전2:1-12
①. 두 본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필기 고시 당일엔 본인이 선택한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실기 고시를 치를 것.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 (8 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본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2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00
-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2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2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6회 총회기간(5월 22일-24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1)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에게 속소를 예약할 것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 (Rev. Hae Choi) / Email: hankschoi@gmail.com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Cell: 267-471-7777
-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고시부 부장: 이정현 목사 (310)749-0577 (lakwpc0316@yahoo.co.kr)
2) 고시부 서기: 최해근 목사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3) 영어권 안내: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org)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2.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7(Fri) - 21(Mon), 2012.
2) Place: Sheraton Meadowlands Hotel & Conference Center, East Rutherford, NJ, 07073 (Tel: 201-896-0500)
-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Genesis 3:1-21
(2) NT Exegesis Text - 2 Peter 3:8-13
(3) Thesis Topic - A Critical Review of VeriChip from the Reformed Perspective
(4) Sermon Text - ① OT : Joel 2:28-32 ② NT : Acts 2:1-12
* Choose one of the two texts above.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hankschoi@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HanksChoi_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2.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00 (US)
-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2..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2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6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2-24).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1) through Rev.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2)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1.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2.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 7. Submission Address**
Rev.Hanks Choi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Email: hankschoi@gmail.com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 Cell: 267-471-7777
-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ung Hyun Lee (310)749-0577 (lakwpc0316@yahoo.co.kr)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Hanks Choi (267)471-7777 (hankschoi@gmail.com)
3) In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org)

“한국교회, 北 긴급사태 맞아 평화의 기도” 북한·통일 관련 40여 기독교단체 ‘주빌리비상구국기도회’

북한·통일 관련 40여개 기독교계 단체들이 민족의 미래와 평화통일을 위해 비상구국기도회를 열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에서 마련된 ‘주빌리 통일비상구국기도회’는 북북한역목회자협의회를 비롯한 종교개혁, 북한선교 관련 단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에 의한 평화통일을 간구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번 기도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북한 내 급격한 변화와 혼란을 우려해 긴급히 마련했다. 오정현 목사는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김 위원장이 급박한 죽음을 맞을 때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이 눈물어린 기도로 보호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 민족의 미래와 북

적 평화통일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설교했다. 이날 기도회에 참가한 2500여명은 오 목사의 인도 아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등의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다. 기도 제목으로 ‘남북한에 하나님께 기뻐하시지는 지도자가 세워져 통일한국 시대를 열 수 있길’ 이번 사태가 북측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환위부의 기회가 되길 ‘한국교회가 민족과 세계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길’ 등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정한 기간 매주 기도하겠다는 헌신약정서를 작성해 통일한국을 기도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도회에 참여한 한 선교단체 간사는 “여러 단체와 함께 다르게 기도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참 좋았다”며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보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기도회는 CTS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유관지(북한교회연구원장) 하광민(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 사무총장) 목사 등 북한 사역자들도 축도와 환영 인사로 기도회에 참여했다. 이번 기도회는 찬양사역 단체인 부흥한국과 사랑의교회 대학부가 2004년부터 매주 목요일 시행하는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의 연장선상에서 열린 것이다.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이란 이름으로 남북한과 세계 여러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이들은 올 3월부터 ‘주빌리통일구국기도회’로 이름을 바꾸고 통일기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단재명 앞에 붙은 주빌리(Jubilant)는 ‘희년(禧年)’을 뜻하는 용어로 성경에 따르면 50년에 한번 오는 이날엔 모든 히브리인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고 부채를 탕감 받는다. 주재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희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등과 자유를 제공하는 한다면 통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되자는 의미에서 이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했다.

“8월 단둥서 피살선교사 독극물로 심장마비” 북한공작원 소행..사모·선교단체 국민일보에 제보

지난 8월 중국 단둥(丹東)에서 사망한 고 김장환(46) 선교사의 사인이 ‘독극물로 인한 심장마비’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 선교사의 부인 김하영(가명·45) 사모와 한국기독교발목본진정착지협의회(한정협) 등 북한 선교단체들은 26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고 김장환 선교사의 사인은 독극물로 인한 심장마비이며 그 성분이 브롬화나오스티그민이라는 독약으로 부교감신경흥분제인 이 물질은 10mg만 투여해도 호흡이 정지되고 심장마비로 즉시 사망하는 맹독성”이라고 밝혔다. 또 “이 결과는

사고 직후 김 선교사의 혈흔을 채취해 신뢰할 수 있는 국내 유수 연구소에 성분검사를 의뢰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교사는 지난 8월 21일 오후 중국 라오닝성 단둥 시내 한 백화점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앞에 거품을 몰고 쓰러져 병원에 호송됐으나 숨졌다. 중국 공안은 단순 강도에 의한 범행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독극물이 몸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몇 시간 만에 온몸이 파랗게 멍이 든 점도 그렇다. 독침으로 찌른 정황이 전문 범죄 집단

의 소행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누가 왜 김 선교사를 살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김 선교사가 평소 탐욕자와 북한 어린이를 돕고 김정일 비판 문건과 성경 등을 북한에 밀반입한 활동 정황과 사망 전 북한이 대북 선교사들에게 직간접으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위협한 점도 예사롭지 않다. 김 선교사는 1992년 2월 북한 선교의 꿈을 품고 김 사모와 함께 중국 단둥으로 출국했다. 중국에 머문 지 19년 6개월 만에 변을 당한 것이다. 김 사모는 “남편은 평소 북한 사투리를 배우고 익히며 어떻게 하면 북한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연구했다”며 “남편은 중국 공안의 감시대상 리스트 1순위에 올라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했다.

서울역 노숙인 10명 중 7명은 예배를 드리거나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등 종교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행사 참여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요소로는 ‘마음의 위로’가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교회회방봉사단(한교봉)은 22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

세로 나타났다. 노숙생활 기간은 평균 8.63년이었고, 52년 동안 노숙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학력은 고졸이 140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 등 대학을 다닌 경력이 있는 경우도 38명(8.1%)이 나왔다. 이들의 종교는 개신교(182명·40.6%), 불교(53명·11.8%), 천주교(33명·7.4%) 등 순으로 나왔

보다 높은 결과다.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참여 선택사유의 제한’(124명·30.0%)이 가장 많이 꼽혔다. 코레일의 서울역사 내 노숙인 퇴거 조치의 부적절성도 드러났다. 퇴거조치 이후 쉼터에 새로 입소한 노숙인은 11.9%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서울역사 주변 지하도

서울역 노숙인 10명 중 3명 “종교행사에서 마음의 위안 얻는다”

년기념관에서 ‘노숙인 실태조사 발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12일 서울역 주변 거리 노숙인, 시설 노숙인 등 472명에 대해 다시서기상담보호센터 등 11개 기관 관계자들의 일대일 면접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49.34세였다. 연령 범위는 15-79

다. 또 응답자의 69.2%는 종교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무료급식(41.1%), 예배·미사 등 종교행위(38.8%), 종교단체 씬 및 시설 이용(21.2% 이상 중복 응답) 등을 경험했다. 종교행위 참여로 얻게 되는 긍정적인 면으로는 ‘마음의 위로’(134명·31.8%)가 가장 많았다. ‘복지서비스 이용’(107명·25.4%)

나 다른 공공장소로 흩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를 주관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종교단체가 주거가 취약한 거리노숙인, 만성노숙인에 접근할 때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노숙인의 욕구는 주거, 일자리, 의료 영역에 집중돼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절대 감사 (시118:1-13) 찬427장

감사로 시작해 감사로 마치는 본문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습니까(14). 시편성고를 당한 자와 같은 처지에서도 감사했습니까(8-9). 시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건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14:6-7, 15:13-14). 둘째, 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했습니다(1:4). 믿음의 최상의 표현인 감사는 근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뿌리를 내립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요약되는 시인의 관찰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한 보호 때문에 감사했습니다(8-9). 시인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만이 절대 피난처였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제도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에게 숨을 대가장 완벽한 보호를 받습니다. 새해의 항해는 믿음의 절대감사로 시작합니다.

화 나의 하나님 (시118:14-29) 찬403장

환난 중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바른 관계에서 생깁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습니까(14). “나의 능력이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이 모든 힘의 근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모든 일의 말천으로 삼은 자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반경에도 풍부에도 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즐기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14:11-13). 둘째, 하나님을 자기의 구원으로 삼았

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란 모든 내외적 위협에서 구하신 분이 하나님뿐이란 뜻입니다. 의인의 장막에는 구원의 강적이 있고 극단적 파멸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12). 셋째, 하나님을 자기의 찬송으로 삼았습니까. 그래서 시인은 그를 노래하였고, 그 앞에 기도하였고, 의의 문으로 담대히 들어가 절기 예배를 드리며, 복을 받아 이웃을 축복했습니다(26-27). 새해에는 하나님과 개인적 관계에 더욱 초점을 맞춥시다.

수 복된 길을 가자 (시119:1-8) 찬234장

말씀을 예전하는 본편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항상 점검할 신앙의 거울입니다. 복된 길을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첫째, 성경을 배우는 자가 복됩니다(9). 여호와 율법, 주의 도, 주의 율법, 그 주의 말씀으로 표현된 성경을 마음으로 배우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음식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착념하는 자는 반드시 복의 실체를 만납니다. 둘째, 성경을 지키는 자가 복됩니다(10). 성경의 실상을 알게 되면

이미 자기 것으로 삼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잘 듣기만 하면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로 나가기 때문입니다(15:8).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14:12). 새해의 기이한 일은 성경이 내 속에서 일할 때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성경 앞에 설 때 겸손을 배웁니다(18).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의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절기를 하게 됩니다.

목 성경의 능력을 알자 (시119:9-16) 찬214장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의 능력이 두 가지로 나타남을 발견합니다. 첫째, 죄를 이기게 합니다(9-11). 모든 죄는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항상 주위에 머물 것입니다. 모든 죄 사함 받은 신자라든 말씀에 따르면 온갖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죄의 자국을 이기지 못하다 오직 특별계시인 성경에 자신을 드릴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16:3). 그러므로 성경에 헌신함이 주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 없이 그리스도도

없습니다(No Scripture, No Christ).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성경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둘째, 세상에 선포할 절대 메시지를 알게 합니다(13).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조종할 수 없고 그 놀라운 보화를 증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새해의 복은 성경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의 것입니다.

금 말씀 체음 (시119:17-24) 찬235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발견은 성경과 영혼의 만남으로 알려집니다. 시인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첫째, 성경에 눈이 열렸습니다(18). 시인은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해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글자를 통해 알려지는 하나님과 그의 성품은 광야를 걷는 세상이 위로 내리는 잠만나입니다. 둘째, 영혼의 상태를 맞춥니다(20). 또 시인은 고난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은 원수의 비방이 빔빔치듯 몰려오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말씀을 통해 자기 영혼의 상태를 경험했습니다. 셋째, 영혼의 즐거움을 경험했습니다(24). 성경을 나의 즐거움, 나의 충고자로 삼은 시인은 성경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기이한 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구절을 개인적으로 말함으로써 자기 영혼에 우의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많이 체음하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합시다.

토 말씀에 대한 사모심 (시119:25-32) 찬241장

로고스와 레미아 구분하기보다 기록된 말씀 자체가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는 시인의 사모심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첫째, 심령의 가난상태로 시작했습니다(25). 영혼이 진도에 붙은 상태는 하나님 앞에 선 절대기반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5:3).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의 부요를 체험합니다. 둘째, 영적조명을 갈구했습니다(27). 자기 눈을 열어달라는 목적이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나눔과 그의 성품을 알고 그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영안의 눈 뜨임이라면 조명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눈 뜨임입니다(엢1:17-18). 셋째, 말씀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31). 성경의 세계를 본 시인은 하나님과 그 말씀(세)에 자기 영혼의 뜻을 내렸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든 잔잔하던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은 하늘의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풍랑의 새해에도 가장 안전한 포구인 성경으로 피폐합시다.

월가시위대와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

평화나눔공동체 유엔 NGO캠프 참가학생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NGO인 평화나눔공동체가 마련한 유엔 NGO 캠프(12월16-27일)에 참가 중인 한인 청소년들이 ‘유엔 인권의 날’ 행사 프로그램으로 인신매매, 노숙자구결, 공정무역거래, 이민정책 등 인권문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를 찾아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참가학생들은 지난 크리스마스에 오후 가난한 노숙자들은 물론 외로이 빈부격차해소를 위해 워싱턴DC 프랭클린 공원에서 텐트생활을 하며

시위를 하고 있는 월가시위대를 방문 특별 성탄절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성탄절 음식과 케를 준비해 100여 명의 월가시위대와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었다. 아울러 유엔 캠프참가학생들은 손수 만든 성탄절카드를 나누어주기도 했다. 월가 시위에 한 리더는 “이민자들이지만 세계의 인권과 노숙자구결에 관심을 갖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인 청소년들이 대견스럽다”며, “속히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상진 목사는 “과거 2000년 연초에 워싱턴에서 빈민국인들의 체류 탄압을 위한 대대적인 ‘희년운동’의 영향으로 클린턴 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빚을 탕감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두 달 전에는 월가시위대의 영향으로 100여 명의 갑부들이 미의회로서 ‘우리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달라’고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며, “비록 과격한 시위의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이들을 통해 많은 기업가들이 양심적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p>세계로 나아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p>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0:00: 오전 7:30 주일 2:00: 오전 9:45 주일 4:00: 오전 11:30 주일 6:00: 오후 7:30 신앙학교: 오후 7:30 www.gksa.org</p>	<p>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전유철 주일 10:00: 오전 7:45 주일 2:00: 오전 9:30 주일 4:00: 오전 11:30 주일 6:00: 오후 7:30 www.msp.org</p>	<p>남성열린교회 담임목사: 박원성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9:30 주일 4:00: 오전 11:30 주일 6:00: 오후 7:30 www.msl.org</p>	<p>남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경현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30 주일 4:00: 오전 7:30 www.msc.org</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연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주일 4:00: 오전 11:00 www.njcc.org</p>
<p>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성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www.rdc.org</p>	<p>남가주사망의교회 담임목사: 김요성 주일 10:00: 오전 7:30 주일 2:00: 오전 9:15 주일 4:00: 오전 11:15 www.smc.org</p>	<p>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www.dh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 담임목사: 권영자 목사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www.dsc.org</p>	<p>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www.dream.org</p>	<p>라허브드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www.lhc.org</p>
<p>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성명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15 www.mpc.org</p>	<p>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주일 10:00: 오전 8:00/8:45 주일 2:00: 오전 11:00/11:45 www.bjc.org</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손원석 주일 10:00: 오전 7:30 주일 2:00: 오전 11:30 www.bhc.org</p>	<p>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배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00 www.vbc.org</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애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www.fpc.org</p>	<p>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재경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15 www.bridge.org</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30 www.wsc.org</p>	<p>새창교회 담임목사: 정병계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30 www.sc.org</p>	<p>샌디에고 영락교회 담임목사: 김명박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30 www.sdc.org</p>	<p>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용성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30 www.ayc.org</p>	<p>얼비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봉수 주일 10:00: 오전 7:30 주일 2:00: 오전 11:30 www.ebc.org</p>	<p>오렌지카운티제임장로교회 담임목사: 염영민 주일 10:00: 오전 8:15 주일 2:00: 오전 11:00 www.occ.org</p>
<p>침례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임영서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30 www.ccc.org</p>	<p>온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0:00: 오전 7:30 주일 2:00: 오전 9:30 www.ohc.org</p>	<p>인랜드교회 담임목사: 박신철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00 www.ic.org</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문 주일 10:00: 오전 8:30 주일 2:00: 오전 11:45 www.jnyc.org</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은준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30 www.cd.org</p>	<p>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영룡 주일 10:00: 오전 8:00 주일 2:00: 오전 11:30 www.cs.org</p>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 655-0008
Fax: (323) 655-0048
NY: Tel: (718) 896-4300
Fax: (718) 896-0774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입니다

동부교계 게시판

“빈방 있습니까?” 미동부 순회공연

극단 증언의 “빈방 있습니까?” 미동부 순회공연이 지난 28일 7시 워싱턴성광교회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일정은 다음과 같다. △1월4일(수) 9시 브루클린제일장로교회(박상훈 목사) △6일(금) 7시 뉴저지 가스펠벨로우침교회 △8일(주) 5시 뉴욕장로교회(선교사의집 후원) △11일(수) 8시 뉴욕새누리장로교회(김형석 목사) △13일(금) 8시 뉴욕 새생명장로교회(허윤준 목사) △14일(토) 2시 뉴욕효신장로교회(문석호 목사/선교사의집 후원), 7시 뉴저지 필그림교회(양준길 목사) △15일(주) 5시 퀸즈한인교회(이규섭 목사) △18일(수) 8시 필라델피아스카운티장로교회(김풍운 목사) △19일(목) 8시 필라델피아한인장로교회(정인원 목사) △20일(금) 8시 필라델피아교회(박성일 목사) △21일(토) 7시 필라한인침례교회(안영균 목사) △22일(주) 1시 뉴욕 온누리교회(조문희 목사)



뉴욕일원 한인교회들 일제히 성탄예배 드려

올해 마지막 주일예배가 성탄절과 겹쳐 모든 교회들이 2011년 마지막을 주님오심을 축하하는 예배로 드렸다. 미국 교회들은 예배를 생략한 교회들도 있었으나 한인교회들은 모두 성탄행사와 함께 기쁨으로 맞았다. 사진은 퀸즈장로교회 주일학교 영어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필라기독교방송국 수요일예배 부활

15년의 역사를 가진 필라기독교방송국(대표 전영현 목사)이 그동안 중단했던 수요일예배를 부활, 매주 수요일 기독교방송국에서 방송에 관심 있는 각 교회 목사, 제자, 평신도들이 모여 기도회를 갖기로 하고 지난 21일 20명의 목사, 장로들이 모여 뜨겁게 예배를 드렸다.

이날 전영현 목사 사회로 한상우 장로 기도 후 김세훈 목사 특송, 이대우 목사(필라교협회장)가 눅1:26-38을 인용, “은혜를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탄생하는 은총을 입었듯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 전파에 앞장서자”고 전했다.

뉴욕과 뉴저지서 ‘맑은영성학교’ 시작

본지 칼럼니스트 이희녕 사모, 1월 둘째 주부터

본지 ‘영성칼럼’의 필자 이희녕 사모(뉴저지 북음성장로교회·사진)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맑은영성학교’를 시작한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맑은 영성의 그리스도의 종 훈련학교”라는 의미를 지닌 ‘맑은영성학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따른다. 이는 ‘왕에게 기도로 앞드리며 생명을 살리는 절대순종사역’이라고 이 사모는 설명한다.



등 록비는 120달러(등록은 이메일로 하고 등록비는 시작 당일에 지불). 개강일에 창세기 인물의 입장에서 창세기를 완독해 와야 한다.

매 강의를 ‘하나님 마음듣기 축제’라고 표현한 이 사모는 첫째 주 ‘영성 단계 진단’, 둘째 주 ‘하나님의 마음듣기 개론’, 셋째 주 ‘치유가 일어나는 인물목상’ 등 매 주마다 찬양으로 시작해 강의 및 소그룹 말씀묵상, 중보기도의 순서로 진행된다. 12주째에는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마지막으로 강의를 끝내게 된다.

강사 이희녕 사모는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CCC에서 기본 신앙생활을 훈련받았으며 비브리컬신학교에서 석사학위(기독교상담)를 받았다. 1976년 이후 이민 개척교회 사모로 제자훈련, 큐티훈련, 상담, 2세 영어목회와 교육, 사명자, 지도자 훈련에 헌신해왔다.

저서로는 “근고한 심령이 살아나는 만져주심”(두란노), “사모님~ 축복합니다”(두란노)와 역서로 “교회 내 여성지도력”(쿠파)이 있다.

▲연락처: (973)442-8242, 이메일: heenlee55@hanmail.net

강의는 ‘고통스런 광야학교를 지나거나 지난 은혜에 목마른 주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장소 및 일시는 다음과 같다.

▲뉴저지: 뉴저지북음성장로교회(담임 강세대 목사, 903 S. Beverwyck Rd., Parsippany, N.J. 07054), 1월10일(화)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2시30분-4시 △뉴욕: 새순교회(담임 석준호 목사, 40-15 149th St. Flushing, N.Y. 11354), 1월 12일부터 3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1시30분.

교회넷, 성탄맞이 사랑의쌀 나누기

새해엔 무료 떡국잔치도 열어

인터넷신문 교회넷(대표 우병만 목사)이 지난해에 이어 24일 성탄맞이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가졌다. 오전 9시부터 한 시간동안 플러싱 퀸즈중앙감리교회(담임 이종범 목사)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 쌀 100포를 이웃에게 전달했다.

쌀 배급에 앞서 뉴욕교협 회장 양승호 목사가 축사한 후 기도했으며 격려 차 참석하신 하길 목사(교협증경회장)도 축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도 참여한 80세 노인에서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

운 한인, 생사를 넘어 탈출한 탈북자들이 참석해 성탄의 훈훈한 사랑과 정을 함께 나눴다.

특히 사랑의 쌀 일부는 뉴욕코요 장애아동서비스센터(전선덕 대표), 무지개의 집(사무총장 김은경), 선한이웃어린이선교회(김창열 목사), 뉴욕병원선교회(김영환 목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교회넷은 2012년 1월 2일 플러싱 마포갈바시당에서 무료 떡국잔치를 베풀기도 했다. (기사제공: 교회넷)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회장 황영진 목사 등 임원 전원 유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정총, 사업보고 및 내년계획 발표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황영진 목사)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낮 금강산 식당에서 열려 회장단을 모두 유임시켰다. 황영진 목사는 “기아대책은 원래 인기가 2년이나 1년만 말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회장 황영진 목사, 부회장 이만호 목사,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가 2012년 한 해를 더 맡게 됐다.

1부 예배는 박진하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사업국장), 설교 김종덕 목사(이사), 축도 임병남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덕 목사는 누가복음 2장8-14절을 본문으로 “기아대책은 떡과 복음이 함께 가는 데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며 “성탄을 맞는 기아대책의 중심에 주님이 오셨을 때 방을 드리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드리는 기아대책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회의에서 황영진 목사는 “세계 85개국에서 1500명 이상이 사역을 하고 있는 기아대책은 미동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지만 모든 지원과 협력을 받고 있다”며 “타 구제단체와는 달리 예수님의 사랑을 떡과

복음으로 전하는 선교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즉 “일시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순수 선교기관”이라며 “성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보고시간에는 2011년 1월 14일 신년하례를 시작으로 홈페이지 제작, 오빙이 제작, 연방정부 세금면제 프로그램 신청, 국제기아대책 미주지역 대표자 회의, 폴폴비아 아동후원 전시회 등의 사역을 보고했다. 내년 사업으로는 2월에는 폴폴비아 아동선교센터를 방문, 나머지 5천 달러 후원금도 전달하게 되며 찰스 랭크 의원 고문 추대, 가수 박정현 초청 후원의 밤 등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날 재정 및 감사 보고는 수입 27,311달러, 지출 26,966달러로 보고됐다.

동 기구는 현재 14개 교회와 개인 2명이 95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으며 지역은 컬럼비아와 페루이다. 2012년 신년예배 및 1월 월례회는 1월 20일(금) 오전 11시 코리아나 식당에서 가질 예정이다. (유원정 기자)



우측부터 황하균 교무처장, 이용원 전 총회장, 김석형 직전 총장, 이의철 미주성결교회총회장, 장석진 이사장, 이대우 교수

미주성결신학대 이의철 3대총장 취임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제3대 총장으로 선임된 이의철 목사(뉴저지는 해제일교회 담임)의 총장 취임식이 지난달 6일 오후 6시30분 롱아일랜드 드레스코드교회(담임 김석형 목사)에서 열렸다.

현재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인 이의철 신임총장은 “미주성결신학대학교가 설립돼 오늘에 이르기까지 역대 총장, 학장들이 헌신적으로 수고해 이룩한 학교의 전통을 이어 받아 미주성결교단의 교역자 양성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며 웨슬리 복음주의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고 영성을 훈련하며 사명에 헌신하는 목회자, 선교사, 교회지도자를 양성하며 학교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1부 예배는 교무처장 황하균 목사의 사회로 기획처장 조승수 목사가

기도하고 명예총장 김석형 목사가 설교했다. 김석형 목사는 설교에서 “그동안 학교를 위해 헌신해 온 이의철 박사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신학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해 교단을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취임식은 총무이사 이대우 목사의 사회로 동부지방회장 이규연 목사가 기도하고 이사장 장석진 목사가 “신학대학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된 때에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열정을 갖춘 총장이 취임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는 축사와 함께 총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학생대표의 꽃다발 증정과 재학생의 축하 후 이의철 총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기사제공: 미주성결신학대학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안내							기쁨과 영광교회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9:00 세계기도회: 오후 8:00 영양강화예배: 오후 8:45 Tel: (718) 482-7781, Fax: (718) 482-6837 47-26 Queens Blvd., Sunnyside, NY 11104 www.nayonchurch.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9:30 세계기도회: 오후 8:30 근로회: 오후 9:00 Tel: (718) 484-2286, Fax: (718) 482-4893 46-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9:30 세계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9:45 Tel: (718) 387-9126, Fax: (718) 387-9433 40-06 Seaton Ave., Queens, NY 11364 www.nyymchurch.org	뉴욕리얼미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재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9:00 세계기도회: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후 9:15 Tel: (918) 387-1977, Fax: (918) 387-1987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6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후 9:00 Tel: (718) 487-3910, Fax: (718) 487-3411 49-04 162 St., Flushing, NY 11355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 오후 8:30 수요 기도회: 오후 9:30 세계기도회: 오후 10:00 Tel: (718) 481-7338 / Fax: (718) 481-7777 48-48 162 St., Flushing, NY 11355	뉴욕 중부교회 담임목사: 김계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 오후 8:30 세계기도회: 오전 9:45(월-토) Tel: (718) 279-2327, Fax: (718) 279-1227 82-02 Hance Harding Lane, Lido Beach, NY 11667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9:00 세계기도회: 오후 8:00(월-토) Tel: (718) 482-3071, Fax: (718) 482-4378 77-07 Woodside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9:30 세계기도회: 오후 8:30 Tel: (718) 762-2726, Fax: (718) 762-2711 42-28 125th St., Flushing, NY 11355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0:30 수요 찬양: 오후 8:30 세계기도회: (월) 10, (토) 8:30 Tel: (201) 219-9126, Fax: (201) 643-526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범 주일 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10:30 수요 찬양: 오후 8:30 수요 기도회: 오후 9:30 세계기도회: 오후 9:00 Tel: (718) 387-3621, Fax: (718) 387-3621 37-87 104 St., Flushing, NY 11355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 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전 10:30 수요 찬양: 오후 8:30 수요 기도회: 오후 9:00 Tel: (516) 337-7007 / Fax: (516) 337-4504 182 Ocean Ave., Westbury, NY 11590	메디슨교회 담임목사: 장종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 오후 8:30 수요 기도회: 오후 9:00 Tel: (917) 384-3880, Fax: (917) 384-3880 485 Ave. Rd., Wayne, NJ 07474(917) 384-3880 480 Main St., Fort Lee, NJ 07024(917) 384-3880	이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9:30 세계기도회: 오후 8:30 Tel: (718) 489-8328, Fax: (718) 489-8432 89-32 47th Ave., Woodside, NY 11377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예배: 오전 12:30 수요 예배: 오전 8:00 수요 찬양: 오후 8:00 Tel: (718) 767-6604, Fax: (718) 767-6604 70 Plandome Rd., Manhasset, NY 11360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승익 주일 1부예배: 오전 12: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9:00 세계기도회: 오후 8:30 Tel: (718) 762-2726, Fax: (718) 762-2711 169-12 72nd Street, Queens, NY 11355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희영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00 수요 찬양: 오후 9:00 세계기도회: 오후 8:00 Tel: (201) 219-9126, Fax: (201) 643-5264 445 Old Post Road, Hackensack, NJ 0760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후 7:30 수요 찬양: 오후 9:30 Tel: (718) 480-4540, Fax: (718) 480-7729 5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queens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예배: 오전 8:00(월)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토) 수요 예배: 오후 7:30(토) 수요 찬양: 오후 9:30(토) Tel: (718) 487-4120, Fax: (718) 487-4120 88-06 23rd Ave., Sunnyside, NY 11360 www.queenscc.org	한미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아아름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전 8:30 수요 찬양: 오후 8:30 세계기도회: 오전 9:00 Tel: (516) 277-1103, Fax: (516) 277-6304 78 School St., Great Neck, NY 11042 www.hanmi浸례.org	미주크리스천신문과 개척할 후원교회들을 찾습니다 L.A.: Tel: (323) 666-0009 Fax: (323) 665-0048 N.Y.: Tel: (718) 699-4490 Fax: (718) 699-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남미지역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허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8:00 수요 찬양: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전 9:40 Tel: (577) 4485, Fax: (577) 4485 Rua Anjoes Fls, 111, Curitiba S, Par. Cap 81219-019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 예배: 오전 11:30 수요 찬양: 오후 8:00 세계기도회: 오전 9:30 Tel: (011) 55-11-3270-8232, 3277-1161 R. Lúcio Alves 18, Curitiba SP CEP 812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전 10:30 수요 찬양: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9:00 Tel: (011) 55-41-8724, 8852-1169 RUA SANTA ANA, 123, PAR. CAP. SÃO PAULO-SP-05424	아르헨티나 재림교회 담임목사: 최광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전 11:00 수요 찬양: 오후 8:00 수요 기도회: 오후 9:00 Tel: (54) 11-631-1788 AV. CARABOBO 1283 CAP. FED., S.A.E.,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황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수요 예배: 오전 8:30 수요 찬양: 오후 7:45(월) 수요 기도회: 오후 9:00 Tel: (56) 21-539-7828, (56) 21-539-6388 Santiago Centro - 3 Calle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 예배: 오후 8:00 (1, 2, 3세 어린이들) Tel: (596) 211-574-888 E-mail: hseon@hseon.org Cervantes Rd., 1001, Asuncion-PARAGUAY		



남가주목사회 그랜드파크 양로병원 성탄절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김영대 목사)가 주최하고 장 애우사랑교회(담임 오진형 목사)가 주관한 성탄절 예배가 그랜드파크 양로병원(2312 W. 8th St, LA)에서 23일 오전 10시에서 개최됐다.

오진형 목사의 사회로 열린 성탄절예배는 이우형 목사가 기도를 허귀암 목사가 성경봉독, 김영대 목사가 '하늘

에서 내려온 사랑'(눅 2:8-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목 사회 회원들이 특송을 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모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행사를 통해 목사회에서 옥수수빵과 두유, 그리고 티셔츠 등을 양로병원 환자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동아프리카 기아와 난민돕기 소리엘 지명현 전도사 콘서트

동아프리카 기아와 난민돕기 소리엘 지명현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미주한인기아대책기구, 다솜교회, 대흥장로교회, 오렌지힐교회 공동주관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열렸다.

25일 오후 5시 오렌지힐교회(담임 백창호 목사)에서 열린 콘서트에서 지명현 전도사는 '온 땅이여 찬양하라', '사랑하는 자여', '낮은 자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등 소리엘의 곡들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Oh Holy Night' 등 크리스마스 캐롤을 불렀다. 또한 찬양사역자 이은수 목사가 찬조출연자로 나서 이날 콘서트를 빛내주었다.

한편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23일 다솜교회(담임 이근환 목사)에서 24일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에서 열렸다. <제1365호 12면 기사참조>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담임목사 청빙

은혜와평강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자로 목사안수 후 5년 이상 사역한 자로 정규대학교 본 교단에서 인정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으로 본 교단(KAPC) 소속이거나 본 교단에 가입할 수 있으면 된다. 제출기한은 1월 20일까지.

▲문의: gracenpeacechurch@gmail.com

글로벌선교교회 신년부흥집회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신년부흥집회를 1월 6일(금)부터 8일(주)까지 박용규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한다. 시간은 금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30분, 주일 1, 2, 3부.

▲문의: (909)369-4441

다솜교회 2012년 특별새벽기도회

다솜교회(담임 이근환 목사)는 2012년 특별새벽기도회를 1월 9일(월)부터 14일(토)까지 갖는다. 시간은 월-금(새벽 5시30분), 토요일(6시)이며 강사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희문 목사(기쁨의 교회), 김종진 목사(Onebody 미주대표), 이근환 목사(다솜교회)이다.

▲문의: (562)596-8013

새생명비전교회 신년비전축제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신년비전축제를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이디오피아교회에서 갖는다. 일정과 강사는 1월 4일(수) 박종길 목사(엘바인온누리교회), 11일(수) 김한오 목사(세리토스장로교회), 18일(수) 노진준목 사(한길교회), 25일(수)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2월 1일(수) 최 혁 목사(사랑의빛선교회)이다.

▲문의: (323)373-0110



미주한인 청년학생 선교대회 GKYM Vision2011이 3천여명의 청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가장 높은 부름, 선교에 헌신하라!

'GKYM Vision 2011'대회 3천여 청년들 참석

젊은이들의 선교집회 'GKYM Vision 2011' 대회가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igher Calling 2'라는 주제로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샌디에고 '타운&컨트리 리조트컨벤션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GAP선교회가 공동 주최하고 GKYM 준비위원회와 KCCC USA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의 첫날 저녁집회는 한국계 데이브 기본스 목사(뉴송처치 담임)와 둘째 날 저녁집회는 중국인 프랜시스 쉐인 목사('Crazy Love' 저자)가 강사로 나서 청년들의 가슴에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번 대회는 김하중 전 통일부장관 및 주중대사, 이용희 에스티기도운동 대표, 이재만 선교사(장조과학선교회), 안찬호 케냐선교사, 김홍덕 목사(조이장애인선교회),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대릴 스미스 CCC '학생 벤처' 디렉터 등이 강사로 나서 새벽과 아침저녁 선포 특강을 인도했으며 콘서트, 선교박람회, 체육행사, 조별 모임, 금식기도, 전도 훈련, 노방 전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GKYM 준비위원장 김동환 목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된 것이 큰 수확"이라고 말하며 "선교를 위해 도전을 주고

거기에 응답하는 차세대를 세우는 수련회로 진행됐다"라고 말했다.

실행위원장 김지성 목사는 "가장 높은 부름인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원하는 2세대들이 메시지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져 기도와 찬양에 몰입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며 "목회자 120여명과 함께해 식사서빙 등으로 섬기고 서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00명이 중·장기 선교에, 1,700명이 단기선교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성과를 낳았던 이 대회는 27-30일 캐나다 밴쿠버와 뉴욕주 로체스터에서도 열렸으며, 내년 대회는 7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한인 세계선교대회에서 전체가 함께 모인 가운데 개최된다.

(박준호 기자)



동아프리카 기아와 난민돕기 소리엘 크리스마스 콘서트에서 지명현 전도사가 찬양했다



성탄절 창작극 '아빠의 집'이 ANC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실직한 아빠의 가족 지키는 고투 담아 ANC온누리교회 성탄절창작극 '아빠의 집'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는 성탄절을 맞아 24일 오후 7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성탄절 창작극 '아빠의 집'(극본 크리스틴장, 연출 제임스장)을 공연했다.

'아빠의 집'은 불경기와 실직으로 인해 1년 넘게 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아빠가 어렵사리 장만한 집

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비장한 사투를 벌이는 이 시대의 아빠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연극의 각 요소에 코믹한 장면과 유머 등으로 관객들의 웃음을 이끌어내지만 처절한 아빠의 몸부림과 경기한파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이민사회를 대변하는 듯 한 이야기 '아빠의 집'에 고스란히 담겨져 관객들을 숙연케 하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제임스장 집사는 "이 시대에 겪고 있는 가장들의 아픔이 이번 연극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된 집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작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오레곤 소재 벨엘장로교회 이돈하 담임목사 취임식과 조송희 장로 임직식을 마친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나님 향한 초심 잃지 않도록 기도당부 벨엘장로교회 이돈하 담임목사 취임 및 임직식

오레곤 소재 벨엘장로교회가 지난 달 11일 오후 5시 이돈하 담임목사 취임식과 조송희 장로 임직식이 많은 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본당에서 열렸다. 전 해외한인장로회 서부북노회장 강순의 목사의 집례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어 제4대 이돈하 담임목사 취임식이 거행됐다.

이돈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본인은 하나님의 대리 목사로 예수님을 모신 당나귀의 자세로 목회에 임할 것을 밝히고 목회 소신으로 화목을 도모하는 교회, 생명사역이 있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함께 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담임목사

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설립 21년 된 벨엘교회가 개교회 양적성장에만 초점을 두게 아니라 모범된 교회로 성장하길 바라며 지역 모든 한인교회들과 같이 성장하고 지역 복음 전도와 세계 선교에 동참하며 또한 교회가 한인사회와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2만여 한인사회를 바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3부 장로 임직식에서는 조송희 집사가 장로로 임직 받았다. (기사 및 사진제공: 벨엘장로교회)

SAINT MISSION UNIVERSITY
목사 · 선교사 후보생 장학생 모집
www.saintmu.us
 3407 W 6th St, # 705 Los Angeles CA 90020
 213-251-0191, 213-514-0037 saintmu10@gmail.com

Reformed University U.S.A
 미주개혁대학교(원) www.reformeduniv.org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예배장악학과
 Toll Free 1-800-281-2123
 2017 E Olympic Blvd, #201 Los Angeles CA 90006
 TEL: 213-222-6288 Fax: 213-222-1104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책화점
 2017 E Olympic Blvd, #201 Los Angeles CA 90006 www.lifebook.co.kr
 TEL: 213-222-6288 Fax: 213-222-1104 Email: wordoflife@reformeduniv.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GRAND OPENING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생파티,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기 프린터
 BURN · PRINT
 초간편 복사기
 전도용 플러시 판매
 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선교지에 미주크리스천신문을!”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원하는 선교사님을 지정하거나 후원 선교지역을 명시해주시면 본지가 선교사님과 연결해드립니다.
 전 세계에는 2만 여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현재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에 따르면 아시아권에 1만3천 869명, 유럽에 1천988명, 아메리카권에 3천124명, 아프리카 중동권에 1천907명 그리고 오세아니아 태평양권에 713명이 파송돼 있습니다.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은 세계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와 아울러 신문 보내기로 문서선교에 동참하시도록 애독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를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미주크리스천신문 선물'은 매년 내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후원회망 지역(나라):

후원자	한글
	영문
주 소	
전 화	팩스:
이메일	@
기 타	1년 후원 / 2년 후원 / 3년 후원 * 약정 후원 년수에 O동그라미 해주세요.

 후원방법: 1년 구독비 190달러를 본지로 우송해주시면 됩니다(미국내는 100달러).
Pay to Order : The Korean Christian Press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신년축하광고

Happy New Yea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1)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헌성
1925 Wilshire Blvd.
L.A., CA 90057
Tel. (213)413-1600
Fax.(213)413-1911

낙원장로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41-20 Queens Blvd.,
Sunny side, NY 11104
Tel. (718)482-7788
Cell.(917)349-563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사랑의교회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42-15 166St.
Flushing, NY 11358
Tel. (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대홍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el. (310)719-2244
Fax.(310)719-2229

등문교회
1901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483-6625
Fax.(213)483-6675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 (213)380-9377
Tel. (213)380-9078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방주선교회
담임목사: 박동서
5738 Marconi Ave.,
Carmichael, CA 95608
Tel.(916)482-8800
Fax(916)482-5571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벤엘장로교회
담임목사: 변영익
857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7-1733
Fax.(323)931-2836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562)690-9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새창조교회
담임목사: 정병재
23814 S. Vermont Ave.,
Harbor, CA 90710
Tel. (310)325-0501
Fax. (310)325-4282

성서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병용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6-0554
(310)515-7207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재연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순복음뉴욕교회
담임목사: 김남수
130-30 31Ave.,
Flushing, NY 11354
Tel. (718)321-7800
Fax.(718)321-9394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어린양교회
담임목사: 김수태
69-38 47th Ave.,
Woodside, NY 11377
Tel.(718)899-8309
Fax.(718)899-8433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중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결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145-15 Bayside Ave.
Flushing NY 11354
Tel. (718)729-0854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월셔중앙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634 S. Normandie Ave.
L.A., CA 90005
Tel. (213)384-4272
Fax. (213)384-8638

주신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용익
188-12 72Ave
Fresh Meadows, NY 11366
Tel. (718)310-7061
Tel. (718)310-7062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939-8599
Fax.(718)321-880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영춘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안디옥교회
담임목사: 호성기
One Antioch Ave.,
Conshohocken, PA 19428
Tel. (610)828-6760
Fax.(610)260-1343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호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와이안디옥침례교회
담임목사: 우동식
99-400 Aiea Heights Dr.,
Aiea, HI 96701
Tel. (808)488-7552
H.(808)625-4479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718)353-3159
Fax.(718)353-31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권마태 한국어



소문 들으셨지요!



지금 한글 ㄱ ㄴ 도 몰라도 학생 혼자 스스로 “권마태 한국어” 교과서 DVD로 공부하면 신기하게 책을 읽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안에 우리 어른들처럼 못읽는 한글이 없게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한글 10일 만에 빨리 가르치기
저자 권마태 목사

**미국 공립학교 교과서 채택 기념!
2세대들 선물용! 상고 대 방출!**

한글을 배울 때 쓰지 않고 브레인 (뇌) 에 자동으로 저장시키는 첨단시대의 교육방식으로 미국정부 교육국에서 검증 공립학교 교과서로 채택한 “권마태 한국어” 동포 2세 들을 위하여 연말 선물 대 할인 판매를 단행합니다. 1인당 5 Set 로 제한함을 양해하여 주세요!



권마태 한국어 교과서 3권 DVD 6장

정가 \$539.00 ▶ 특별할인 \$199.99 (1인당 5 Set 제한)

학부모님들께서 가르치실 필요가 없으며, 학생 혼자 스스로 컴퓨터나 DVD Player 로 보면서 절대로 쓰지않고 DVD 따라하기 10 시간만 공부하면 저절로 한글의 원리를 알게되어 지금 한글 ㄱ ㄴ 도 모르는 학생도 10시간 만에 기적처럼 신문도 동화책도 즐즐 읽을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 (213) 234-5577



KWONMATAE FOUNDATION • KWONMATAE CORPORATION • KWONMATAE KOREAN SCHOOL
E-Mail : kmatae@gmail.com www.kwonmatae.com



한국에서 만납시다

주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Take His Word, Return to Lord!

제 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및
평신도 지도자 세미나

▶ 일 시 2012년 4월 17일(화) ~ 4월 20일(금)

▶ 세미나장소 한국 금란교회 ▶ 숙소 워커힐 호텔

주강사



김용도 목사
 • 금란교회 동사



소강석 목사
 • 새에덴교회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장영준 목사
 • 분지 발행인

※ 강사는 추후 발표합니다.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 등록 신청서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이름	한글	영어	직분	성별
교회 이름	한글	영어		
교회 주소				
전화	Fax.	E-mail.		
사택 주소				
전화	Fax.	E-mail.		

()와 같은 방을 쓰시원함

관광에 참여하기 원함

등록금	목회자	
X명	평신도	
소개		
선금	CK#	
전금	CK#	

본인은 제27회 세계한인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주후 20 년 월 일

서명: _____

※ 위의 영어 명은 반드시 여권 이름으로 써 주십시오.
 ※ Pay to the order 는 The Christian Press 로 써주시면 됩니다.
 ※ 등록 (100불 이상 등록금을 보내신 분) 즉시 등록 접수증을 보내드립니다.
 ※ 전금을 등록만기일 이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등록 취소 시에는 50불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참석대상

- 1) 현재 시무중인 한인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부부
- 2) 평신도 지도자(장로, 권사, 집사)

■ 등록금

목사·선교사: **조기등록 150달러** (※선착순 마감) (2012년 2월29일 이후 등록 200달러)
 평신도지도자: 200달러
 한국현지등록: 50불(숙박제외)

■ 연락처

NY: 노선희 전도사 TEL.(718)886-4040, FAX.(718)358-7789, sunnykapcq@yahoo.co.kr
 LA: 이성자 전도사 TEL.(323)665-0009, FAX.(323)665-0046

■ 항공권/관광 문의 :

뉴욕서울왕복 항공료: 1,250불 (Senior 1,160불)
 LA 서울 왕복 항공료: 1,220불 (Senior 1,130불)
 왕복 항공과 3박 4일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 관광, 모든 Tax포함 1,560불
 담당자 : 유 여행사 (718)463-9500 / Mrs. 유Miss 진 / yootravel@hotmail.com

